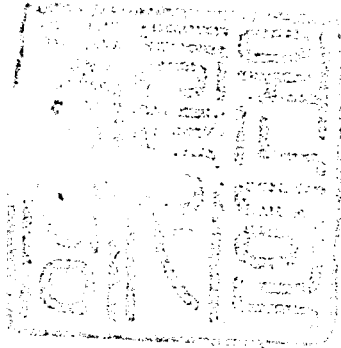


時事資料·第32號

統一教育



統一研究院

目 次

I. 北韓動向

- ◎ 88년 北韓動向綜合 5
 - 金日成, 金正日の 活動..... 5
 - 對中·蘇 및 非同盟 外交..... 12
- ◎ '89년 政治情勢 展望 20
- ◎ '89년 對外政策推進 展望 30
- ◎ '89년 經濟政策 變化展望 37
- ◎ 黨 第6期 14次 全員會議 開催..... 44
- ◎ 세바르드나제 外相 訪北動向 53
- ◎ 高位級 代表團 海外巡訪 動向 64
- ◎ 北韓, 蘇聯間 “經協” 強化 70

II. 資 料

- ◎ 合營工業部の 新設과 合營事業 現況..... 77
- ◎ 政務院 改編 背景 分析 83
- ◎ 海外公館長 交替現況 89
- ◎ 主要 經濟課業과 實績分析 95
- ◎ 北韓 UNDP 關係現況 108

◎對外 協定 締結 現況	114
◎電子 및 自動化 工場 發展注力	131

Ⅲ. 알아봅시다.

◎革命遺子女學院 運營實態	141
◎北韓의 “구호나무” 宣傳騷動	147
◎白頭山 一帶에 “金父子 偶像聖域” 造成	152
— “대노천 博物館” 工事로 進行	152
◎平壤서 “成道節 法會” 開催	158
◎順川 綜合化學團地 建設實態	164
◎朝鮮勞動黨의 誤謬와 矛盾性	170

I. 北韓動向

- 88년 北韓動向綜合
 - 金日成, 金正日の 活動
 - 對中·蘇 및 非同盟 外交
- '89년 政治情勢 展望
- '89년 對外政策推進 展望
- '89년 經濟政策 變化展望
- 당 第6期 14次 全員會議 開催
- 세바르드나제 外相 訪北動向
- 高位級 代表團 海外巡訪 動向
- 北韓, 蘇聯間 “經協” 強化

◎ '88年 北韓動向 綜合

— 金日成·金正日の 活動 —

'88년 한해 동안에도 金日成과 金正日は 對內外 政策指導活動을 展開하는 가운데 前近代의인 붉은 王國으로 지칭되고 있는 北韓의 政治形態를 再演出시켜 주었다.

北韓은 울들어 全世界的으로 東·西 和合과 改革·開放 물결이 擴散되는 등의 時代的 轉換과 變化潮流 속에서도 絶海의 孤島를 지키듯 폐쇄의 城이나 다름없는 金日成父子 王國을 守城하는데 注力했다.

이에따라 北韓 住民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에도 外部 世界와 차단된 채 金日成父子의 言行에 따라 時代逆行的인 忠誠勞役鬭爭에 매달려야 하는등의 忍苦의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金日成父子는 예년과 다름없이 이른바 「現地指導」 名目の 政治視察 活動을 展開, 北韓의 對內外政策 全般에 대한 統治者的 役割을 遂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政策指導活動에서 金日成은 對內外 分野를 두루 指導한 반면 金正日도 주로 對內 分野에만 置重한 特徵을 보였다.

예년의 경우 金日成은 中國을 公式訪問(87.5.20~26)하

는 등 外遊 活動과 함께 7회에 걸친 現地指導를 實施했는데 올해에는 몽고 訪問活動과 함께 10회에 걸친 現地指導 活動을 벌였다.

그러나 올해 76세의 老齡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北韓의 最高政策決定機關인 黨 政治局會議를 두차례(2.26~7.7)나 主宰하는 한편으로 야케시 체코共産黨總秘書, 李鵬 中國總理 等 平壤을 訪問한 外國元首들과 頂上會談을 갖는 등 왕성한 政治活動을 펴는 가운데 健在함을 과시했다.

반면 金正日은 지난해에 7회의 政策指導活動을 實施하는데 그쳤으나 올해에는 15회를 實施, 배가된 趨勢를 보이며 그의 統治者的 役割遂行이 強化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金正日은 金日成이 對內政策指導는 물론 外國首腦 및 外國代表들과의 會同을 비롯해 駐北韓外國 大使들의 信任狀 接受등 외교통수권을 全般的으로 行事하고 있는 반면 對內經濟·社會文化 分野에만 국한되어 있어 아직까지도 후계통치체제 準備過程임을 反證했다.

이러한 金父子의 政策視察 活動形態는 으레히 上意下達만이 存在하는 圖式化된 카리스마적 시찰행각으로 進行되었고 北韓宣傳機關들에 의해 『首領은 비범한 叡智와 탁월한 領導力을 갖춘 萬物の 創始者』, 『金正日 同志는 통이

크고 대담한 統率力을 지닌 統治者」로 美化讚揚되는 契機가 되는 가운데 北韓住民과 勤勞者들은 盲信徒들처럼 無條件인 服從만이 強要되었다.

金日成의 첫 現地指導 對象은 4월 4일 平壤市 일원의 主要建設場이었다.

내년 7월초부터 平壤에서 열리게 될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을 對備해 建設되고 있는 平壤市內 建設場은 광복절 거리·능라도경기장·양각도축구경기장·국제영화관·안골체육촌 등 대규모 建設作業들이 進行되고 있는 곳으로 北韓의 올해 최대 關心事業으로 되고 있다.

金日成은 現地敎示란 것을 통해 각 建設對象의 早期完工과 함께 이를 위한 勤勞者들의 努力배가를 促求했다. 이같은 儀禮的인 指示事項들은 으레껏 金日成敎示로 비유되며 無條件인 服從과 貫徹을 意味하는 絶對的 命令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또한 그같은 絶對的 命令에 대한 行動化를 다짐하기 위해 金日成敎示貫徹 鬨기집회라는 異色的 煽動모임이 뒤따르는 것도 北韓特有의 慣行이다.

예컨대 金日成의 첫 現地指導인 平壤市 일원 視察과 관련해 4월 10일 平壤 金日成廣場에서는 平壤市黨責檢 인민위원장 姜希源을 비롯, 黨·政官吏들과 平壤市民 勤勞者들이 動員된 가운데 金日成敎示貫徹을 위한 平壤市 勤勞者

들의 쫓기모임이란 것이 열렸다. 이 集會에서 姜希源은 『수도의 全體 黨員들과 勤勞者들은 首領님의 4월 4일 現地 敎示를 높이 받들고 平壤을 더욱 웅장하게 꾸리기 위한 大建設戰鬪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설것』을 呼訴하는 煽動演說을 했으며 이어 決議文과 맹세문 採擇등의 忠誠鬪爭을 다짐하는 의식을 進行했다.

이같은 形態로 進行되는 金日成의 現地指導는 下半期 들어서도 9월 3일의 정주 선진호 트랙터工場視察과 삼석구역 협동농장시찰, 순천비날론공장(10.8), 대성구역협동농장(10.22) 등 5개 대상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 되었다.

金日成은 現地指導외에도 일반적인 行事에도 빈번히 參席했는데 예컨대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對備 行事圖案·裝飾品展示場 參觀(8.6)을 비롯, 全國英雄大會(9.2), 능라다리·금릉동굴개통식(9.3), 안골체육촌 竣工式(9.3), 9.9절 40주년 行事(9.8) 등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活動動向을 비쳤다.

한편 金正日은 上半期 중에 平壤國際會館(3.31) 視察을 始發로 遞信·放送分野(4.5), 자강도 강계시 地方産業 自動化 工業分野(4.15) 등을 視察했으며 下半期 들어서는 신의주市 建設部門事業(6.24), 咸北道內 人民經濟部門事業(7.5); 무산광산(8.19), 상원시멘트공장(8.30), 平壤科學院

(8.31), 工作機械展示館(9.6) 등 주로 經濟分野에 대한 集中된 特徵을 나타내며 모두 15회의 現地視察을 벌였다.

金正日의 現地指導 視察행각을 分野別로 區分해 보면 총 15회 가운데 10회가 經濟分野이고 나머지 5회는 社會·文化分野인 것으로 나타났다.

金正日是 現地指導행각시에 吳振宇·李根模·許談 등 黨·政고위관리들을 대동함으로써 자신의 統治者的 權威를 意圖的으로 浮刻시키는 慣行을 예년과 다름없이 되풀이했으며 올해부터는 현지도도 대상現地에서 이른바 關係부문 일군협의회(7.5 咸北道內 現地指導時)를 소집하는 등 보다 強化된 統治力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金日成 現地指導 때와 마찬가지로 金正日의 視察행각이 끝난후에는 現地勤勞者들의 鬨기모임이란 것이 매년 개최되어 勞役倍加鬪爭을 다짐하는 것이 常例化되었으며 이에따라 北韓勤勞者들은 兩頭統治體制에 따른 二重三重的 忠誠과 勞役鬪爭을 다짐하고 貫徹해야 되는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결국 北韓住民들로서는 金日成과 金正日에 의해 실시되는 現地指導가 「首領과 指導者同志(金正日)의 사랑과 恩德」을 受惠받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重勞動과 盲從으로 채워진 무거운 膳物을 떠 받는 계기일 뿐이기에 한마

디로 가증스런 행각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 료) 金日成·金正日 현지지도 日誌

3.31	金正日 : 국제문화회관 시찰
4.4	金日成 : 平壤시가지 건설장 시찰
4.5	金正日 : 平壤市 체신·방송분야 현지지도
4.13	金正日 : 慈江道 江界市 시찰
4.15	金正日 : 자동차공업분야 시찰
4.16	金日成 : 혁명연극 「경축대회」공연 관람
4.25	金日成 : 軍부대 시찰
4.29	金正日 : 林春秋 장례식참석
6.24	金正日 : 신의주시 건설부문사업 현지지도
7,5-6	金正日 : 咸北道에 현지지도
7.7	金日成 : 당정치국회의 주제(청진)
8.6	金正日 :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대비한 780여점의 행사도안 및 장식도안 참관
9.2	金日成·金正日 : 전국영웅대회 참석
8.4	金日成 : 학생소년예술小组공연 관람
8.9	金正日 : 무산광산 현지지도
8.30	金正日 : 祥原시멘트공장(평양) 현지지도
8.31	金正日 : 平壤 「과학원 과학전시관」을 시찰

9. 3	金日成 : 능라다리 및 금릉동굴개통식 참가 삼석구역 협동농장 시찰 정주 선진호 트랙터공장 시찰 안골체육촌 준공식 참석
9. 4	金正日 : 옥류관(증축공사) 시찰
9. 6	金正日 : 공작기계전시관 시찰
9. 8	金日成 : 9.9절 40주 기념보고회
9. 9	金日成 : 시위행진 참관(군중회의)
10. 8	金日成 : 순천비날론공장 시찰
10.12	金日成 : 농기계(신형) 시찰
10.22	金日成 :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 시찰
10.29	金正日 : 문화예술부 「혁명사적관」 시찰 「경공업제품전시관」 시찰
11.23	金正日 : 평양교예학교 졸업생공연 관람

—對中·蘇 및 非同盟외교—

'88년도 北韓의 對中·蘇 및 제3 世界外交活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慣例的 性格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國際情勢는 물론 韓半島 周邊氣流가 새로운 樣相을 보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에 대처하려는 反應적 性格을 지니고 있었음도 分明하다. KAL機 爆破事件으로 北韓의 對外的 이미지가 惡化되어 있었고, 더우기 年初부터 이미 서울올림픽의 世紀的 祝祭로서의 成功이 豫見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을 前後하여 韓國의 國際的 地位가 크게 向上되면서 그들의 傳統的 盟邦인 中·蘇 및 東歐圈의 對韓 接觸 및 交流가 현저히 增大되는 등 北韓의 外交的 立地와 與件이 상당히 좋지 못한 情況이었으며, 따라서 北韓은 이러한 狀況을 打開하기위한 外交的 努力을 強化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中·蘇에 대해서는 中·蘇의 對韓關係 조정움직임에 대한 眞意把握 및 傳統的 友好協力關係의 재다짐에 焦點을 두었고, 非同盟圈을 위시한 제3세계에 대해서는 韓國의 外交的 進出擴散의 沮止에 注力한 것이 금년도 北韓外交活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蘇聯과의 關係에서는 外交的 接觸을 緊密히 하는 가운데 金永南 外交部長의 蘇聯 公式訪問을 통해 蘇聯이 既存 對北 및 對韓半島政策과 姿勢를 재확약 받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外交的 成果이다. 85년 4월 以後 3년 만에 이루어진 金의 蘇聯訪問(4.28~5.5)에서 對內外問題와 雙務的 協調問題가 深度있게 論議되고 이것들에 대한 「완전한 見解一致」를 본것으로 보도되었고 특히 外相會談 후 나온 「共同報道」(中央放送 5.7)를 통해 소련이 「南朝鮮에 대한 蘇聯의 原則的 立場에 變化가 없다」는 것과 交叉承認에 의한 「2개朝鮮」 政策에 反對한다는 立場을 分明히 못박고 나섬으로써 韓國과의 비정치적 交流擴大趨勢에도 不拘하고 韓國에 대한 政治·外交的 不承認政策 및 南韓交叉承認反對, 그리고 駐韓美軍撤收 등 既存의 對韓半島 政策을 재확인한 점이 注目되고 있다. 따라서 金의 訪蘇는 韓·蘇關係의 急速한 進展 또는 重大한 質的 變化를 沮止하고자 한 당초 目的은 比較的 滿足스럽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外相會議 이외에 北韓과 蘇聯은 外交部 實務閣僚級 會談을 통해 雙方間 友好協力關係의 強化에 努力했고 그 가운데 11월 13일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과 로가초프 부외상 사이에 89~90년도 外交部 交流計劃書가 調印되어 84년 金日成의 訪蘇이후 이루어진 定例的인 外交部間 會합의 持續을

위한 制度的 裝置도 마련했다.

또한 北韓은 7월 9~10일 平壤에서 蘇聯을 위시한 社會主義國家 副外相會議를 主催하며 43차 유엔總會對策을 協議하고 이들로부터 北韓의 政策에 대한 支持를 다짐받기도 하였다. 蘇聯側에서는 北韓과의 關係 維持에 相當한 努力을 보였는데, 예컨대 蘇聯共產黨 中央委員이며 中央委 제1 부부장인 가쁘도가 고르바초프의 特使資格으로 平壤을 訪問, 金日成·金正日등에게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를 설명한 것과 정권수립 40주년(9.9)에 체브리코프 黨中央委政治局員겸 KGB의장이 의전사절로 파견되어 北韓政權에 대한 나름대로의 最大의 禮儀를 갖춘 것등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당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로미코 最高會議 幹部會議長 대신 체브리코프가 참석함으로써 北韓에 대한 蘇聯의 輕視 내지 牽制姿勢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視角도 있었으나 그로미코는 象徵的 職位에 있었을 뿐인 반면 체브리코프는 고르바초프 政權出帆 以後 政治局員으로 발탁된 實權者의 한사람이고, 더우기 역대 「9.9절」 行事に 政治局員이 派遣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蘇聯의 對北重視 姿勢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국가원수인 最高會議 幹部會議長의 訪北이 延期되어 조만간 새 憲法에 의거 構成될 새로운 最高會議議長에

고르바초프書記長이 就任할 경우 그의 訪北可能性이 더욱
가시화된 結果가 됨으로써 北韓으로서는 望外の 外交的 所得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外交的 相互交流 이외에 北韓과 蘇聯간에는 軍事
部門에서 高位級代表團을 交換한데 이어 蘇聯으로부터
MIG-29 12대가 導入되어 實戰配置되는 등 軍事關係의 強
화도 이루어졌다. 經濟·文化分野에서도 活潑한 交流가 있
었는데, 특히 금년도에도 經濟的 協力이 두드러졌는바, 經
濟的 協定の 締結외에 11월 21일 91~95년도 船舶建造 分野
에서의 經濟 및 科學技術協調에 관한 協定이 조인되었고,
쌍방 科學院간 協調體制하에 지난 9월에 北韓 科學院과 蘇
聯 科學院 極東支部 사이에 最初의 「直接協力協定」이 締結
된 것이 주목되는 動向등이다.

中國과의 關係에서도 蘇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既存의
友好協力關係의 재다짐과 關係擴大에 注力했다. 雙方간 人
的交流에서 意味있는 動向은 4월의 현준극 黨國際部長, 吳
振宇 人民武力部長, 11월 金永南 外交部長의 訪中과 3월
朱良 黨對外連絡部長, 9월 楊尙昆 國家主席의 北韓訪問 등
이다.

玄의 경우 그가 黨國際部長 취임 후 꼭 7년만에 最初로
이루어진 訪中으로서, 비록 그것이 美國의 對北韓 姿勢變

更을 설명하기 위해 平壤에 온 朱良의 訪問에 대한 答訪形式을 띤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中共 指導部로부터 地位에 맞는 의전적 慣例를 넘어서 歡待를 받았고, 그의 訪問期間 吳學謙, 錢其琛의 中國外交政策에 관한 記者會見 등을 통해 「中國은 南朝鮮과의 雙務關係를 發展」시키지 않겠다는 등 既存의 對北支持 立場을 再確認받았다는 것이 意味있는 성과였다. 또한 吳振宇의 訪中도 82년 9월 金日成의 公式 訪問行 6년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88년2월 蘇聯訪問과 均衡을 이룸으로써 中國과의 政治·軍事的 關係 緊密化를 위한 努力의 一環이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金永南의 訪問은 87년 5월 金日成의 訪問時 隨行이래 불과 1년반만에 이루어졌고, 또한 蘇聯公式訪問에 均衡을 취하려 했고 나아가 韓·中國間 活潑한 經濟交流 및 接觸과 함께 8월말 李先念 人民政治協商會議 主席의 「平和 5原則」 強調에 의한 對北 關係變化 예고가 대두되는 등 韓·中國關係의 深刻한 變化가 있지 않나하는 分析과 추측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복잡한 韓半島 情勢 展開狀況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訪問은 韓·中關係의 質的變化에 썩기를 박고자 한데 根本目的이 있었음이 分明하다. 한편 楊尙昆 국가주석의 「9·9절」 參席을 통해 中國은 既存의 對北支持 姿勢를 再確認 함으로써 韓·中 關係에 대한 北韓의 우려를 불식시

키고자 했다. 이러한 비중있는 人物들의 交流이외에 각분야의 代表團 交流過程에서 年例的인 協定을 締結하였고 이 가운데 平壤에서 開催된 科學技術協調委 제28차 會議에서 中國側 29개 對象과 北韓側의 41개 對象을 포함, 70개의 科學技術協調對象에 대한 協調議政書를 調印한 것이 가장 注目되는 成果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北韓의 對中·蘇 外交活動을 綜合해 보면 이들간에는 政治·軍事的 分野는 물론 經濟·科學技術分野에서도 본격적인 協力基盤을 構築한 成果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非同盟 제3 세계권에 대한 外交活動에서 注目되는 것은 「9.9절」 行事に 많은 高位級 人物들이 초치되었고, 많은 首腦들이 招請되었을 뿐만 아니라 各種 非同盟 國際會議가 平壤에서 開催된 점을 들 수 있다. 首腦級의 代表的인 訪北事例들만 보더라도 2월 잠비아대통령 카운다, 7월 이디오피아大統領 멩기스투, 9월 마다카스大統領 라치라카, 10월 앙골라大統領 산토스, 11월 세이셸大統領 르네등 전통적인 친북국가들의 首腦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首腦級の 초치를 통해 北韓이 最高首腦部間 交流에 의한 友好關係의 維持라는 傳統的인 外交方式이 再確認된 셈이다. 또한 北韓은 非同盟 灌溉水利專門家會議(7.16~20), 傳統醫

學專門家會議(7.23~27), 제8차 度量衡標準化와 品質管理 調整國會議(8.2~8) 등을 平壤에 誘致, 支持基盤擴充을 도 모하였고, 非同盟外相會議(9.7~10, 키프리스의 니코시아) 에서의 決議案에서 既存의 韓半島 關聯條項을 再確認하여 非同盟 제3세계권에서의 對韓 外交的 優位確保를 꾀하였다. 나아가 親北國際機構를 動員한 北韓立場의 支持確保에도 注力하였는데 11월 24~28일 亞·阿人民團結機構(AAPSO) 제7차 會議에서의 「韓半島에 관한 決議」採擇이 그 代表的 事例이다. 한편 非同盟 제3세계권을 對象으로 한 活潑한 招請外交活動과 더불어 訪問外交도 強化했다.

5월초 李鍾玉 副主席의 잠비아訪問을 위시하여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길재경 黨國際副部長의 앙골라·자이르·콩고·산토메프린시페 巡訪, 5월말부터 6월초까지의 손성필 最高人民會議副議長의 과테말라·페루·파나마 訪問, 6월 20일~24일 李根模總理의 이란방문, 金永南外交部長의 태국(10.27~31) 및 네팔(10.31~11.2)巡訪, 그리고 11월말부터 시작된 李鍾玉이 인솔하는 黨대표단의 잠비아·짐바브웨등 4개국 巡訪등이 있었다.

이와같이 北韓이 亞·阿·中東 및 中南美 國家들을 對象으로 집요한 訪問外交를 展開한 것은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새로운 國際氣流의 形成에 대처, 지속적인 對北支持및 協

力을 維持시키고자 한데 根本目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89년 政治情勢展望

金日成은 올해('89) 新年辭에서 지난해를 『우리인민에게 있어서 永遠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여러가지 意味를 지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은 그것이 지난해 그들이 처했던 政治的 狀況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그는 『지난해에 우리黨의 領導밑에 우리인민은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發狂적인 反共和國 反社會主義 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英雄的인 鬪爭을 벌여 우리공화국의 尊嚴과 榮譽를 더욱 빛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反共和國, 反社會主義 소동을 짓부셨다는 것 보다 그들은 그들의 尊嚴과 名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정도로 곤란한 어려움의 狀況에 직면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이 「黨의 領導」에 의한 것이라는 데 더 큰 比重을 두고 있고 따라서 「짓부셨다」는 소리는 그 목적이 이러한 데 있으며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黨의 領導」를 내세워야 할만큼 그 尊嚴과 名譽는 「黨의 尊嚴과 名譽」로서 심각한 궁지에 처해 있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新年辭에서 『共和國의 權利를 毀損하고 우리인민을 孤立시키기 위한 적들의 策動이 絶頂에 이르렀을 때 우리 黨中央委員會는 全黨과 全體人民들에게 백두의 革命精神을 가지고 적들의 反革命的 攻勢에 革命的 攻勢로 맞받아 나가면서 革命과 建設에서 일대 昂揚을 일으킬 것을 呼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黨과 革命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높이 받들고 역사적인 2백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社會主義 建設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成果를 이룩했으며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고 附言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해에 87년의 KAL機 爆破事件이 金正日이 主導한 그들의 소행임이 드러나 이에 대한 전 世界의 憤怒와 糾彈의 輿論으로 인해 最惡의 궁지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건이 美國과 日本, 韓國, 버마가 造作한 모략극이라는 主張을 일삼았다.

결국 金日成 新年辭에서 말하는 帝國主義者들은 이러한 국가들이고 反動들은 그 외에 그들을 규탄하는 世界輿論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러한 行爲에 不滿을 품은 그들 內部的 勢力까지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黨의 領導」란 이러한 궁지의 탈피를 意味하며 그 手段이 바로 2백일전투라는 것이다.

물론 2백일전투는 經濟的인 側面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제기했던 당중앙위원회 政治局會議(88.2.20)에서의 토론내용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 배경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간 北韓經濟를 金正日이 主導해 왔지만 失敗를 거듭함으로써, 2백일전투는 이를 만회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黨政治局會議에서의 內容은 그에 못지않게 政治的危機 수습의 意味를 짙게 담고 있으며 여기서 이르는 적이라는 對象이 그들 내부의 反金正日勢力을 지칭하고 있는 만큼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칭한 「적」은 역시 그 例外가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처럼 2백일전투가 政治的 意味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은 최근 黨기관지 勞動新聞(89.1.10)을 통해 새로운 2백일전투가 단순한 經濟展望이 아닌 「적들의 발악적 攻勢를 粉碎하기 위한 深刻한 政治鬭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金正日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狀況에

直面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 외의 몇가지 시사된 사실들에서도 代辯되고 있다.

『中共으로부터 수백kg의 爆藥과 爆彈을 실은 北韓의 軍用列車가 87년 12월 咸鏡北道 和順을 지나 영반으로 가던 도중 金正日反對派들에 의해 爆破됨으로써 1백 20명이 死亡하고 5천여명이 負傷을 입었다』(88.2.2 홍콩의 성도만보)라던가, 『北韓에서 平壤의 名門大學 教授들이 金正日을 非難하는 壁報를 공공연히 붙여 40여명이 구속되었다』(88.9.8 일본의 산케이신문)는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그리고 『北韓의 強·穩派의 다툼이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다』(88.2.28 워싱턴 포스트), 『最近 北韓의 軍部가 權力이 金日成에서 金正日로 넘어가는 것을 沮止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88.3.5 홍콩의 사우드차이나 모닝포스트)등의 외국시각 역시 그러한 점에서 우연한 사실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北韓이 北韓軍總參謀長에 최광을 재기용(88.2)한 사실도 그러한 점에서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최광이 빨치산세대이며 그의 재기용과 때를 같이하여 革命世代인 전문섭이 人民武力部長으로 전보된 사실로 보아 金正日의 軍部에 대한 統制力の 弱화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냐는 見解가 없는 것도 아니나 실은 이같은 措置

가 金正日을 補強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도 그의 政治基盤에 있어 위기수습책과 그 意味를 같이 하고 있다.

『새 祖國建設을 위한 人民大衆의 鬪爭은 언제나 反動들의 파괴압해책동, 分裂瓦解策動 등 政治的 謀略이 악랄하게 벌어지는 複雜한 政治的 環境속에서 進行된다. …중략… 우리는 反革命勢力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革命力量의 絶對優勢를 보장하여 모든 試鍊과 難關을 主動的으로 헤치고 革命鬪爭을 勝利的으로 前進시켜야 한다』(88.5.5 평방논설)고 한것을 비롯하여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88.5.25 勞動新聞 論說) 促求, 「黨內에 唯一思想體系確立」(88.6.26 중방논설) 촉구, 「金正日の 革命繼承保障」(88.7.9 勞動新聞 論說), 「主體의 革命觀을 徹底히 確立」(88.10.17 勞動新聞 論說), 「革命的 首領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88.11.4 勞動新聞 論說), 「黨을 強化하는 것은 革命的 主體를 強化하기 위한 基本條件」(88.12.1 勞動新聞 社說), 「黨員들과 勤勞者들을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켜야 한다」(88.12.6 勞動新聞 社說) 등을 지난해에 되풀이해 역설해온 사실도 그러한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 강화해야 했던 필요성만큼 그것은 金正日의 位置가 不安했으며 이러한 事態는 특히 그에 대

한 反對勢力의 반발과 不滿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父子世襲王朝에 危機的 狀況으로 대두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黨과 革命에 充實한」이라는 表現을 빈번히 써가면서 2백일전투의 成果를 讚揚하는 가운데 『共和國創建 40돌 行事를 통해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黨의 領導밑에 우리인민이 간고분투하여 建設한 社會主義 優越성과 威力을 示威했으며 내의원수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언제나 黨과 運命을 같이 해온 勞動者, 農民, 勤勞인테리들을 비롯한 全體人民의 盤石같은 統一團結을 誇示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서 『黨의 領導따라 나가는 길에 반드시 勝利와 榮光이 있다는 우리인민의 信念을 굳게 해주었으며 ... 중략... 우리 인민이야말로 언제나 黨의 부름에 끝없이 充實한 인민이며 그 어떤 難關과 試鍊도 勇敢하게 뚫고 나감으로써 逆境을 順境으로 循環시키고 奇蹟을 創造하고 革命的 人民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實證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그의 言動은 그가 올해 新年辭에서 提示하고 있는 課業이나 그들의 內部的 사정, 그리고 韓半島周邊情勢 및 世界的인 潮流들에서 볼때, 그것이 지난해에 그러했다

고 하고 있는 이상으로 올해에 그러하기를 바라는 요구의 意味가 더 크게 포함되어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상과 같은 狀況은 그들에게 있어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그들이 直面했던 政治的 狀況의 재연 소지를 완전히 解消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처럼 2백일전투의 提起로 일단 수습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체제, 특히 金日成후계세습체제의 항구적인 安定基盤으로 定着된 것으로도 볼 수가 없으며 그러기에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너무도 방대한 課業을 山積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올해 우리앞에는 양양된 革命的 氣勢를 繼續 堅持하여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社會主義 대진군 운동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을 全面的으로 발양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全黨, 全國, 全民이 떨쳐나서 수행해야 할 방대한 革命課業』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그 計劃을 쉽사리 達成할 狀況이 아니라는 것을 실토했다.

北韓이 當面하여 가장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할 政治的 問題가 金正日에 대한 후계세습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合理化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經濟難

解決은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운 狀況을 치닫고 있다.

北韓이 지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경제각료의 更迭과 일부 經濟部署의 改編作業도 斷行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체제가 제약하고 있는 範疇內에서 되풀이되는 일일뿐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87년말 現在 외채 50억달러에 對外貿易總額이 40억 달러인 現實에서 비록 最近의 周邊狀況들이 改革과 開放을 치달음으로써 그러한 압력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그들체제가 개방에는 가장 취약한 金日成父子偶像化라는 모순때문에 開放에도 限界가 있으며 따라서 對外交流 및 協力 역시 制限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거듭해온 經濟計劃의 실패상은 後續 計劃推進에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經濟難回復을 후계세습의 名目으로 삼으려했던 그들의 의도에 暗雲을 드리우고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사정은 여타 經濟部門에 打擊을 주어가면서까지 준비해온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의 開催로 그 轉期를 삼으려하고 있지만 그 준비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開放과 改革이라는 世界的인 趨勢로 그 祝典이 내세우고 있는 「反帝鬪爭」구호의 名分이 退色해가고 있어 祝典의 成功的 開催나 效果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고 있다.

金日成이 올해 新年辭에서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을 今年의 推進課業으로 내세워야 할 필요만큼 그것에 비중을 두고 있고 그같은 비중만큼 이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革命課業은 革命的 方法에 의해서만 成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략… 革命의 主體인 人民大衆의 革命的 熱意와 創造力을 最大한으로 發動하여 提起된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것은 우리黨이 一貫하게 堅持하고 있는 革命的 方法』이라고한 金日成의 新年辭 내용은 올해 그들의 狀況이 지난해에 못지않은 사정임을 示唆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고질화된 經濟難의 打開가 어려운만큼 政治的 곤경의 돌파구를 經濟難打開에서 찾고 그러한 명분으로 合理化해 보려던 政治狀況의 수습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올해 역시 政治的 곤경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反共和國, 反社會主義的 策動이 우심해지고 있는 緊張한 情勢속에서 벌이는 새로운 2백 일전투는 單純한 經濟戰이 아니라 적들의 發惡的 攻勢를 粉碎하기 위한 심각한 政治鬭爭으로 되고 있다』(89.1.10 勞動新聞 論說)고한 最近의 논조는 바로 그러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말해 現在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懸案問題들을 둘러싸고 改革과 보수 또는 強·穩 양세력간의 對立이 한층 深化될 것으로 豫見되며 이같은 現狀은 體制的인 政治問題로 比化되어 葛藤을 增幅시킬 餘地를 多분히 內包하고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다.

◎ '89년 對外政策 推進展望

지난해 北韓은 對外的으로 새로운 選擇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에서 KAL機 空中爆破테러사건에 따른 美·日의 對北制裁措置 再發動과 이의 解除가 交叉되는 등 심한 葛藤과 起伏이 있었으며, 中·蘇등 형제국들과는 表面的으로 既存의 親善·協調狀態를 維持하면서도 韓國의 7.7宣言과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中·蘇·東歐圈의 對韓接近이 활발히 展開되고 특히 헝가리가 韓國과 準 외교關係를 設定하고 여타 東歐一部國家들도 헝가리식 關係設定모델을 採擇할 것이라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옴으로써 友邦國과의 關係에서 潛在的인 葛藤狀態에 처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이러한 最近의 情勢動向에서 볼때 今年도 北韓의 對外政策方向이 크게 注目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89年度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對外政策方向이 단지 原則的 立場에서만 明示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들이 처한 對內外的 環境에 基礎하여 對外政策方向을 豫測해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금년 新年辭에서 帝國主義의 策動에 대한 激烈한 非難과 이에 대한 鬪爭展開를 과거에 비

해 더욱 부각시킨 점은 對外政策方向예측에서 유용한 단서가 되고 있다.

新年辭에서 『오늘 全般的 國際情勢는 自主·平和·親善의 길을 따라 發展하고 있으나 國際舞臺에는 의연히 進歩와 반동사이의 對立과 鬭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社會主義나라들의 積極的인 平和發起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鬭爭에 의하여 國際的 環境에서 점차 緩和의 雰圍氣가 造成되고 있지만 帝國主義나라들은 힘의 政策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人民들의 自主性을 유린하고 平和를 破壞하는 길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帝國主義者들이 社會主義의 發展을 가로막고 資本主義의 길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反歷史的이고 反人民的 策動이며 어리석은 妄想입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社會主義의 기치를 궁지높이 추켜들고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온갖 攻擊과 非難으로부터 社會主義를 擁護 고수하기 위하여 健결히 鬭爭할 것이며 平和와 社會主義 東方哨所를 튼튼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中央放送, 89.1.1)고 다짐하였다. 帝國主義에 대한 非難과 鬭爭은 以前의 新年辭 등에서도 頻繁히 있어 왔으나 88년의 경우 帝國主義者들의 新植民地 政策에 의한 開途國에 대한 착취와 약탈문제를 集中學論한 것과는 달리 이번 新年辭에서는 帝國主義와 反帝國主義간의 對立과 鬭

爭을 중점 浮刻시킴으로써 신데팡뜨체제돌입에 따른 東·西和解促進과 특히 中·蘇·東歐圈의 對韓關係調整 및 北韓의 相對的 孤立化를 크게 意識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따라서 今年度 北韓外交의 最優先 順位는 共產圈과 韓國關係의 改善을 最大한 牽制내지 沮止하는데 두어질 것이 分明하다. 비록 中·蘇 및 일부 東歐국가들의 對韓 非政治的 關係 改善 및 擴大趨勢는 北韓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現實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政治·外交的 關係로까지 發展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焦眉의 死活的인 문제임에는 理論의 餘地가 없다. 北韓이 이 문제에 深刻하게 對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蘇·東歐圈의 對西方關係 向方에 同向계적 역할을 담당해온 헝가리의 對韓關係動向 때문이다.

韓·헝가리간 常駐代表部開設合意(88.9.13)와 關聯, 勞動新聞의 論評을 통해 이를 「社會主義에 대한 背信行爲」라고 규정하면서 社會主義 國家들이 資本主義國家들과 政·經分離의 關係를 맺는 것은 「相對的」인 것이지 「絕對的」이 아님을 지적, 社會主義國家들의 대서방교류에 限界가 있음을 경고하였으며(9.19), 10월 26일에는 헝가리의 對韓關係 持續方針과 關聯, 外交部代辯人 談話를 통해 헝가리는 南

朝鮮을 獨立國家로, 「2개조선」陰謀를 떠받든 첫 社會主義國家로서 南朝鮮의 反共基地를 더욱 강화시키는 結果를 가져왔고, 자신들의 경고에도 不拘하고 韓國과의 關係심화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結果에 대한 責任을 헝가리가 全적으로 져야 한다고 嚴重警告 한데 이어 그 後續措置로서 11월 5일 駐헝가리대사인 金平一을 소환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反應은 제2, 제3의 헝가리 出現가능성에 대한 危機意識을 基礎로 그러한 事態의 發生을 事前에 沮止 내지 牽制하려는 分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비록 中·蘇가 公式적으로 韓國과 政治·外交的 關係를 설정할 意思가 없음을 계속 天命해 오고 있으나 특히 蘇聯의 外交政策브레인들이 私的인 見解로서 南·北韓交叉承認, 유엔 同時加入에 의한 韓半島緊張緩和를 提議하고 있고, 일부 東歐國家들이 헝가리 方式의 採擇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조짐을 보임으로써 北韓으로서는 이러한 事態進展을 극력 沮止해야 할 절박한 狀況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北韓은 共產圈과의 傳統的 紐帶強化와 韓半島問題에 대한 그들의 立場에 대한 支持의 持續化 確保에 外交力을 集中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北韓은 外交政策의 變化를 慎重히 검토할 것이며, 이는 美·日등 西方과의 關係改善과 海外開放의 擴大로 表

出될 가능성이 있다. 東歐圈의 새로운 改革·開放趨勢에 北韓이 革新的 政策을 導入하지 않는다면 北韓體制 自體가 重大한 挑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危機意識이 變化의 導入을 促進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을 것이며 今年 上半期로 豫想되는 高르바초프의 北韓訪問이 北韓의 對外政策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視角이 支配的 이다. 또한 最近의 中·蘇 關係解氷의 결과 北韓이 이들의 不和를 이용할 所持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北韓으로 하여 금 中·蘇 이외의 국가들에 눈을 돌려 外交的 接觸의 폭을 넓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見解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最近의 급변하는 國際情勢의 氣流를 차치하더라도 北韓의 經濟事情上 對外開放의 擴大가 불가피한 것은 周知의 事實로서, 最近 北韓內 動向이 對外開放의 擴大可能性을 示唆해 주고 있다. 예컨대 新年辭에서 『黨中央委員會 제6기 14차전원회의는 현시기 技術革命과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다그치는데서 關鍵적 高리로 되는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을 빨리 發展시키기 위한 正確한 方向과 方途를 제시하였습니다.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을 發展시켜 生産工程들을 自動化·로보트화하고 유연생산 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經濟發展에서 새로운 技術的 飛躍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라고 밝혔듯이 科學技

術의 革新이 당면과제로 提起되어 있으며 이는 先進國과의 協力體制構築에 의해서만 解決이 가능한 難題임은 주지의 事實이다. 이와관련 12월 15일에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를 設置하였고 그보다 앞선 11월 26일 合營工業部도 신설했는데 이것이 總理의 更迭과 함께 北韓經濟政策의 修正을 위한 措置들이라는 視角도 있다.

그런데 北韓이 對外開放을 擴大하며 外國의 資本·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먼저 美·日 등 先進國들과의 關係改善을 통한 投資 雰圍氣造成이 先行되어야 하며 이는 結果적으로 外交的 開放擴大로 귀착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北韓은 먼저 日本과의 關係改善에 力點을 들 것으로 보이는 바, 다케시타 신정권이 北韓과의 政府次元의 對話와 關係開設用意까지 表明하고 있어 北韓은 高位 政治人의 日本訪問 推進을 통해 將來를 對備, 政治·外交的 關係改善 雰圍氣를 造成하고 富士山號 승무원 釋放條件으로 日本으로부터의 借款導入, 貿易事務所開設 등 經濟的 支援과 讓步를 유도코자 할 可能性이 있다. 美國과의 關係에서는 계속해서 政治·軍事的 提議에 의한 接觸을 試圖하고, 이의 達成을 위해 美國에 교포들의 大規模 訪北推進 및 교포자본의 留置등 民間外交手段의 動員을 強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過去 그 어느때보다도 非同盟·제3世界 外交의 강
 화도 예상된다. 中·蘇·東歐圈의 開放·改革政策과 이에
 따른 對韓關係의 調整趨勢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이들
 로부터의 전통적인 대북일변도적 支持와 支援을 持續시킬
 수 없는 狀況이고 더우기 美·日과의 關係改善 역시 이것
 이 물고 올 對內外的 과급영향때문에 적극 推進할 수 없
 는, 北韓으로서는 결국 非同盟·제3세계권에 期待를 걸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北韓의 제3세계권 外交強化展望은 新
 年辭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여기서 金日成은 『帝國主義
 者들의 支配와 掠奪政策에 對處하며 反帝國主義 力量을 강
 화하기 위하여서는 불력 불가담운동을 계속 發展시켜 나가
 야 합니다... 불력 불가담나라 인민들과 團結하여 帝國主義
 者들의 干涉과 分裂離間策動을 짓부시고... 올해에 베오그라
 드에서 열리는 제9차 불력 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가 불력불
 가담운동의 原則과 理念에 맞게 성과적으로 進行되도록 하
 기 위하여 적극 努力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高位級 人物들의 招請·訪問外交와 經濟的 協力擴
 大를 통해 제3세계, 非同盟圈內 既存의 北韓支持勢力과의
 유대강화에 注力하는 한편, 9차 非同盟首腦會議에서 자신
 들에게 유리한 韓半島條項 採擇을 위해 외교적 努力을 倍
 加시킬 것으로 보인다.

◎ '89년 經濟政策 變化展望

금년도 北韓經濟는 연초에 발표된 金日成의 新年辭만 보더라도 그 展望이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예년같으면 金日成 新年辭의 50%이상이 올해 經濟課業을 提示하는 데 두었을 것이나 금년 新年辭에서는 經濟分野에 대한 言及이 25% 정도에 그치고 있고 發表된 經濟課業에서도 經濟指標나 生産指標는 단 한개도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내놓은 올해의 經濟課業은 確固한 計劃 목표라기 보다는 하나의 經濟煽動에 불과한 것이다.

金日成 新年辭에 나타난 금년도 주요 經濟課業은 크게 두가지로 集約되는데 하나는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의 基礎確立이고 다른 하나는 輕工業 部門에 대한 投資增大이다.

金日成은 工作機械, 電子自動化工業의 基礎育成을 위해 生産工程의 자동화, 로보트화를 실현하고 유열생산체계를 받아드려 어렵고 힘든 勞動에서 완전히 解放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工作機械의 種類와 量을 늘이고 質을 높이면서 製

품을 現代水準에 맞게 生産하고 集積回路, 電子計算機를 비롯한 自動化機器를 많이 生産해야 한다고 했다. 輕工業分野의 發展을 위해 金日成은 올해를 「輕工業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部分에 대한 投資擴張, 包裝事業改善, 輕工業工程등 現代化를 다그쳐야 한다고 強調했다.

그외에도 輕工業發展을 위해 紡織工場, 日用品工場, 食料品工場 등 輕工業生産 施設을 만부하로 가동시키고 製品의 질을 劃期的으로 높여야 한다는 등 輕工業製品의 生産增大를 크게 내세우고 있다.

北韓이 解放이후 지금까지 繼續 重工業優先政策을 追求해 오다 금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輕工業重視政策으로 轉換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長期間에 걸친 人民消費品 生産不足으로 인한 住民들의 불평불만은 高調되고, 오는 7월 1일 平壤에서 開催되는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에 참가하는 世界各國 代表團에게 北韓의 어려운 生活相을 보이지 않겠다는 目前의 필요성 때문에 취해진 措置였다고 생각된다.

철저한 計劃經濟體制를 고수하고 있고 當局의 統制와 干涉하에 運營되는 北韓經濟에서는 新年辭를 통해 指示되는 金日成의 經濟課業과 計劃指標는 初憲法的 偉力을 갖는 政策方針인 것이다.

이와같은 性格의 新年辭에서 提示된 經濟課業이라는 것이 극히 枝葉的인 두가지 部門에 局限시키고 있고 일년동안 達成하여야 할 計劃指標 하나 없다는 事實은 한마디로 말해 금년도 經濟計劃 自體를 樹立할 수 없다거나 經濟成長이나 開發自體를 留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도는 지난 '87年度에 着手된 第3次 7個年 計劃이 정상적으로 遂行되느냐 못되느냐를 판가름짓는 3차년도이고 전환기적 性格을 지니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의 北韓經濟課業에서는 다른 어느해에 비해 政策的 關心이 높아야하고 投資에 있어서도 劃期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이 내놓은 經濟課業이라는 것이 投資를 뒷받침하지 않은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금년도 北韓經濟展望은 原則적으로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北韓은 왜 가장 중차대한 의의를 지니는 올해의 經濟課業을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原因을 살펴보자.

물론 여기에는 北韓經濟가 지니고 있는 慢性的인 生産沈滯, 原料 및 에너지의 不足, 輸出不振, 技術落後 등 근원적인 요인들이 중첩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經濟的 要因외에도 北韓은 금년 7월 平壤에서

開催되는 第13次「世界青年學生祝典」行事를 원만히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지금까지 北韓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平壤祝典」行事에는 世界 40여개국에서 2萬名에 달하는 代表團이 參加할 것이라 하는데, 이 行事를 위해 벌려놓은 수많은 工事의 마무리작업에 드는 費用이 엄청나기 때문에 北韓은 이 行事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금년도 北韓豫算의 가장 큰 部門을 여기에 集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北韓이 서울올림픽을 의식, 자신의 經濟的 力量을 가름하지 않고 초치한 平壤祝典이라는 거대한 政治行事로 인해 經濟發展을 도외시 했을뿐 아니라 經濟파탄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금년도 北韓經濟는 어떻게 運營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살펴본다.

한마디로 말해 금년도 北韓의 經濟 各 部門別 展望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天惠의 氣候條件으로 모처럼 豐作을 거두었던 農業生産이나, 年中 계속된 1,2차 2백일전투로 部分的이기는 하나 어느정도 成果를 거두었던 工業 및 建設部門에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成果가 있을 것이라고 期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우기 지난해에는 農業과 工業, 建設 등 經濟全般에서 상당한 投資가 있었고 年間 기필코 達成시켜야 할 計劃目標도 下達되었던 것인데, 올해에는 이런것이 전혀 없는 狀態이므로 達成시켜야 할 計劃目標, 推進해야 할 方向도 없다.

金日成이 提示한 올해 農業部門의 政策課題는 「農村技術革命을 다그쳐 農業生産에서 보다 큰 前進을 이룩, 社會主義 農村테제의 示威」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食糧生産은 어떻게하고 간석지 개간과 새땅 찾기사업, 營農機械化, 化學化는 어떻게 展開하고 營農技術은 어떻게 한다는 一切의 언급이 없다.

구체적 課業提示와 計劃指標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遂行하기가 어려웠던 北韓의 속성을 감안해 볼때 올해 北韓의 農業生産은 비록 지난해와 같은 史上由來없는 양호한 氣候條件이 保障된다 하더라도 生産의 增大는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工業部門에서도 올해에는 工作機械와 電子自動化工業의 基礎確立, 輕工業發展 등을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이 없고 수치로 제시된 계획목표가 하나도 없어 北韓이 바라는 最大의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水準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工業部門에서 얻은 일부의 成果라는 것도

年初부터 推進한 2백일전투의 結果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제2차 2백일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戰鬪로 지난해와 같은 成果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우기 지금 계속되고 있는 2백일전투는 이제 그 限界性을 노정하고 있고 2백일전투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마저 나타나고 있어 이 運動을 계속 展開하는 데에도 問題가 있는 것이다.

즉 勞働者, 農民에 대한 勞力動員은 一時的 또는 어느 特定課業에 대해 추진할 때에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持續的으로 모든 課業에 대해 실시할 때에는 그 成果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일게 마련인 것이다.

다음 建設部門에서의 展望도 그렇게 밝다고는 할 수 없다.

北韓이 지난해 政權創設 40돌을 「勝利者의 大祝典」으로 맞이한다는 名分下에 기필코 完遂해야 한다고 내놓았던 태천발전소, 순천비날론 工場, 사리원카리비료공장의 建設 등이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타 제시했던 많은 建設事業들도 그대로 있는 實情이다.

未完成된 이 많은 建設事業중에서 金日成이 금년도 經濟課業으로 내놓은 것은 순천비날론공장과 사리원카리비료공장뿐이고 이나마도 年內 기필코 完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 推進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금년도 建設事業은 年內에 그 어느 것도 完工될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우기 새로운 建設事業의 推進은 全面 保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금년도 對外經濟 展望을 해보고자 한다.

지난해는 모처럼 對中·蘇 및 對日 貿易去來가 활발히 展開되어 규모면에서는 다소 늘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나 무역적자 폭은 오히려 커졌던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北韓의 生産部門 全般이 沈滯되고 對外 經濟協力을 위한 活動資金도 줄어들 것이 分明하므로 貿易 去來實績은 지난해 보다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平壤祝典을 계기로 外國과의 상담이 크게 벌어질 可能性도 있기는 하나 輸出商品의 뒷받침이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黨 第6期 14次全員會議의 開催

—工作機械 및 電子工業發展對策 提示—

—金仲麟을 黨비서로 제기용—

北韓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平壤에서 黨제6期 14次全員會議를 開催했다.

이번에 열린 黨제6期14次全員會議는 金日成을 비롯해 黨政治局常務委員·黨政治局員 및 候補委員·黨中央委員 및 候補委員·黨中央檢査委員 등이 參加한 가운데 議題로 上程된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을 빨리 發展시킬데 대하여」(보고자=당비서 延亨默)와 組織問題를 重點적으로 다루었다.

北韓의 黨規約 제24조에 의하면 黨全員會議는 6개월에 1회 이상 召集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이번 全員會議는 지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開催한바 있는 黨제6기 제13차全員會議 이후 약 10여 個月만에 열렸다.

이번 黨제6기 14차全員會議는 北韓이 그동안 持續的으로 主張해온 科學技術개발의 重要성과 관련해 그 한 分野인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의 發展을 促求하고 이에 대한 基本方向 및 과업을 提示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北韓은 1986년 12월 28일 最高人民會議 제8기 1차회의에서 採擇한 제3차 7개년 經濟計劃案에서 科學技術을 發展시키는 問題가 동기간중 推進해야 할 基本課業의 하나임을 분명히 한 이후 금년 3월 黨제6기 13차全員會議에서도 이른바 「科學技術發展3個年計劃」을 推進할 것을 決議한 바 있는데 이 計劃은 電子計算機·自動化裝置·로봇 등 電子工學分野에 대한 研究 및 開發의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볼때 이번 全員會議에서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의 發展에 대한 基本方向과 課業을 提示한 것은 北韓이 生産設備의 근간인 工作機械의 부족한 需要를 充當하기 위한 工作機械工業의 開發과 生産性向上을 위한 工場自動化體系의 推進必要性 등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北韓은 이번 全員會議를 통해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을 發展시키는 것은 『현대科學技術發展의 世界的趨勢』이며 또한 『새로운 段階로 飛躍하고 있는 우리나라 社會主義 建設의 切迫한 要求』라고 전제하고 모든 住民들이 이같은 時代發展의 趨勢에 맞추어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을 發展시키는데 主力할 것을 促求하면서 다음과 같이 基本方向과 課業을 提示했다.

먼저 機械工業發展의 基本方向과 관련해 全員會議에서는 『工作機械工業을 電子工學技術을 비롯한 現代的인 科學技術에 토대하여 急速히 發展시키는 것』이라고 主張하며 이를 위해서 數値調整工作機械와 로보트생산을 늘이는데 선차적인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強調,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간의 상관성을 통해 양자간의 均衡된 發展을 꾀하는 것이 機械工業發展의 基本方向임을 밝혔다.

이어 全員會議는 工作機械工業의 發展을 위한 課業으로 첫째 工作機械의 가지수를 늘여 부족한 需要를 充當하는 것, 둘째 工作機械工場의 技術改善事業을 통해 生産工程의 現代化를 꾀하는 것, 셋째 鑄物品 生産의 專門化·集中化를 통한 型鍛造化·프레스化의 積極的인 實現, 넷째 工具生産의 增大 및 質的 向上促求, 다섯째 機械設備의 油壓化와 그에 맞는 油壓機具生産의 獎勵 등을 提示했다.

北韓은 이른바 「自力更生」의 統制經濟體制를 유지함에 따라 惹起된 資本不足·技術落後·設備의 老朽化로 말미암아 오늘날 經濟的 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全員會議에서 야기된 課業 역시 이러한 北韓의 經濟現實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北韓이 工作機械의 가지수를 늘일 것을 促求한 것이나 工具生産의 增大 및 鑄物品生産의 型鍛造化 推進問題 등을 提起한 것은 그들의

工作機械工業의 現實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번에 黨全員會議를 통해 工作機械工業의 發展問題를 提起하기에 앞서 이미 이른바 「工作機械새끼치기운동」이라는 형태로 工作機械의 不足한 需要를 充當하는데 注力해 왔다. 즉, 北韓은 80년대들어 工作機械의 需要를 充當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1959년에 提起된바 있는 「工作機械새끼치기운동」을 다시금 大的으로 強行해 왔다.

이 運動은 말 그대로 하나의 工作機械가 다른 한대의 工作機械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론상으로 볼때 工作機械의 需要를 創出하는 데는 적절한 것으로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工作機械가 무엇보다도 精密性和 專門性이 要求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方法에 의해 生産된 工作機械의 質的인 조약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더우기 北韓의 既存 工作機械設備나 技術水準으로 미루어 볼때 工作機械의 需要創出에도 分명한 限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이번에 黨全員會議를 통해 工作機械工業의 發展문제를 直接 學論하고 나온 것은 「科學技術發展3個年計劃」 및 제3차 7개년 經濟計劃 遂行을 위한 工業部門의 토대로서의 工作機械工業發展이 무엇보다 先決되어야 한다는 認識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全員會議은 電子自動化工業을 發展시키기 위한 課業으로 첫째 電子計算機 集積回路를 비롯한 電子製品生産基地와 電子材料 生産基地를 強化하여 電子自動化工業에 自立性和 主體性を 強化할 것, 둘째 TV수상기·녹음기를 비롯한 갖가지 日用電子製品의 增産, 셋째 電子自動化工業에 基礎한 純金屬과 高순도 시약을 비롯한 電子自動化工業 부문에 필요한 原料資源의 開發, 넷째 電子製品 生産工程의 現代化 등을 提示했다.

그리고 이번 全員會議에서는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을 發展시키기 위해 ○科學研究事業 및 人才養成事業 強化 ○經濟組織의 改善 ○당적지도의 強化 등의 行政的 支援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특히 科學研究事業 및 人才養成事業의 強化問題는 지난 3월 黨제6기13차全員會議에서도 「科學研究事業의 革命的 轉換」을 議題로 上程하여 科學技術의 發展을 위해서는 科學研究事業을 強化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強調하면서 이를 위해 「科學者後備」를 體系的으로 養成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결국 이번 黨제6기 14차全員會議에서는 지난 3월의 黨제6기13次全員會議에서 採擇한 바 있는 科學研究事業 및 「科學技術發展3개년 計劃」의 遂行過程에서 나타난 문제들 중 보다 先決해야 할 分野로서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

業을 들고 이에 대한 具體的인 과업을 提示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의 분발을 促求하는데 注力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北韓은 이번 全員會議에서 組織問題와 關聯해 金仲麟과 朴南基를 黨秘書로 재기용했으며, 黨政治局 候補委員인 全炳浩(당비서)를 정위원으로 昇格시켰으며, 前慈江道 行政經濟委員長 韓城龍을 黨政治局候補委員으로 選出했다.

이번 人事改編에서 특히 注目되는 점은 지난 70년대 이후 對南擔當秘書로 오랫동안 일해온 바 있는 金仲麟을 '87년 3월이후 在職해온 中央通信社 社長職에서 다시금 黨秘書로 復歸시킨 점이다.

金仲麟의 당비서재기용은 기존의 對南擔當秘書인 許談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北韓이 이들간의 位相을 어떻게 定立하느냐 하는 問題와 함께 對南政策을 보다 強化하리라는 관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료〉 원문발췌

黨제6기 14차전원회의 「보도」 요지

○ 전원회의에는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빨리 發展시킬 데 대하여」가 의제로 상정되었다.

○ 현시기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이며 새로운 단계에로 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의 시대는 전자공업의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공작기계를 수치 조정화하고 생산공정을 로봇화하는 전자화의 시대, 로봇트화의 시대이다. 우리는 시대발전의 추세에 맞게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 전원회의는 우리당이 제시한 기계공업발전의 기본방향은 공작기계공업을 전자공학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치조종공작기계와 로봇트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지적했다.

○ 전원회의는 공작기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으로 공작기계 가지수를 늘이기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공작기계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공작기계들의 기술재건사업을 힘있게 벌여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주물품생산을 전문화·집중화하여 형단조화 프레스화를 적극 실현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공구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높일 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기계설비들을 유압화하며 그에 맞게 유압기구생산에 큰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전원회의는 전자 자동화공업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은 지금있는 공장기업소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을 더욱 높이면서 수치 조정장치를 대량 생산하여 공작기계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전자계산기 집적회로를 비롯한 전자제품 생산기지와 전자재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우리나라 전자 자동화공업에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리고 전원회의는 일용 전자제품에 대한 인민들에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텔레비전수상기, 전자수상기, 녹음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일용 전자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전자자동화공업에 기초인 순금속과

고순도 시약을 비롯한 전자재료의 생산기지를 구색에 맞게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자자동화공업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그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자제품생산공정을 끊임없이 갱신 현대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원회의는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와 설계 및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해야 하며,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 세바르드나제外相 訪北動向

蘇聯外相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가 12월 22~24일간의 平壤訪問日程을 보내는 가운데 金日成과 一聯의 會談을 갖고 北韓-蘇聯간의 對內外的 當면 懸案들에 대한 協議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7년 1월 平壤訪問에 이어 두번째로 訪北한 세바르드나제外相은 3日간의 訪問期間중 金日成과 北韓外交部長 金永南과 한차례의 公式會談을 가진 것을 비롯, 歡迎宴會 參席, 革命烈士陵 參拜등 儀禮的인 日程을 보냈다.

세바르드나제의 이번 訪北動向에서는 그가 日本·필리핀 等地를 訪問하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對北韓開放促進 發言을 한데다 최근들어 韓半島 情勢變化가 加速化되고 있는 時點에서 進行된 것이기에 전례없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시기적으로 세바르드나제의 北韓訪問은 最近 韓國과 蘇聯關係가 急速히 進展되고 있고 美·北韓關係 역시 改善되고 있으며 특히 南北對話가 活潑히 전개되고 있는 時期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蘇聯이 韓半島情勢變化

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적지않은 期待를 갖게 했다.

세바르드나제는 日本訪問時에 平壤訪問때 金日成에게 對外開放을 促求하겠다는 發言을 흘렸는가 하면 北韓에 대한 對外開放說得이 그의 가장 큰 訪北目的인 듯한 인상을 여러차례 비쳤다.

그러나 막상 세바르드나제의 訪北活動에서는 그같은 관심사에 대한 確答이 될만한 具體的인 立場이 실현된 바는 없고 오히려 韓半島問題와 相關한 從來의 北韓측 主張들에 대한 支持立場을 재확인해 주는 등 既存의 雙方關係不變을 시위하는데 注力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3일 平壤에서 北韓外交部長 金永南이 主催한 歡迎宴會席上에서 행해진 세바르드나제의 演說行間에는 北韓을 포함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開放的 關係」를 促求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세바르드나제는 演說에서 『蘇聯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更新過程이 進行되고 있으며 모든 生活領域을 改編하기 위한 改革이 急激히 實施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는 이것이 모든 형제나라들의 利益과 우리의 前進運動의 利益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現在의 國際情勢가 共產圈 國家들 간에도

公開的이고 均衡的인 關係를 유지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따라 『時間은 형제적 社會主義 나라들 사이의 關係를 更新토록 要求性을 提示하고 있다』는 등으로 北韓을 포함한 全體 共產圈 國家들이 對外開放政策에 나설 것을 암시하는 發言을 했다.

이와 關聯해 宴會演說을 한 北韓外交部長 金永南은 세바르드나제의 그같은 發言內容에 대응할만한 아무런 言及도 하지않아 對北韓開放을 促求한 發言으로 보기에 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들어 北韓이 政務院內에 合營工業部를 新設한 것을 비롯,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을 立案하는 등의 內部的인 움직임과 關聯해 볼때 적어도 經濟開放問題가 쌍방 外相會談을 통해서 論議되었을 可能性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

특히 세바르드나제가 平壤을 떠나기 앞서 가진 記者會見席上(24일)에서 蘇聯과 北韓間에 『對外政策的 協調를 強化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고 말하고 『원동에 一聯의 地域들에 經濟的 潛在力을 開發하는데 共同으로 參加하는 것과 함께 생산집단들 사이의 接觸을 日常的으로 改善해야 한다』고 強調한 事實 등에 비추어 볼때 雙方間의 對外經濟協力問題가 진지하게 討議되었음이 反映되고 있다.

이는 蘇聯이 시베리아개발에 北韓參與를 권고하는 등의 相互 經濟協力強化에 積極的인 關心을 표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한단계 더 나아가 對西方경제 교류등과 같은 「開放·改革」問題를 北韓측에 直接的으로 勸告했을만큼 對北韓影響力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時機尙 未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北韓이 최근 蘇聯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다 方面적인 開放과 改革政策推進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음이 분명해 졌다.

北韓의 金日成은 23일 세바르드나제와의 會談에서 蘇聯의 改革·開放政策에 關係 通報를 받고 『우리는 큰 關心을 갖고 蘇聯社會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實現되는 改編過程을 注視하고 있으며 改編이 完全한 平和를 달성할 것을 축원 한다』고 말했다.

金日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시기 소련지도자들과의 會 同席上에서 흔히 언급되는 의례적인 표현이긴 했으나 여느 때와는 달리 개혁·개방문제가 쌍방간에 중대이슈로 대두 된 시점에서 언급된 것이기에 주목되는 대목이었다.

따라서 金日成의 意中에 소련식 개혁·개방정책이 긍정 적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 내에서 개혁·개방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다.

더우기 북한정권수립 이후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내외정책들이 소련의 후견자적인 지원과 협력하에 수행되어온 전례에 비추어 볼때 소련식 개방·개혁 波高가 북한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세바르드나제의 이번 訪北動向에서 주목되었던 대목은 韓半島統一問題와 관련한 소련의 對北韓支持立場의 不變을 크게 시위한 점이었다.

세바르드나제-金永南 會談의 결과로 발표된 「共同報道」에서는 최근의 南北對話등 韓半島統一問題에 대한 蘇聯과 北韓의 「共同補助」立場이 재확인 되었다.

이 「공동보도」에서 쌍방은 이른바 고려연방제안을 비롯해 3者會談·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 등 종래의 북한측 統一方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으며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문제에 대해서도 『두개 朝鮮을 조작하여 朝鮮의 分裂을 영구화하기 위한 美國과 南朝鮮當局者들의 策動』이라고 비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蘇聯은 韓半島 緊張緩和問題와 관련해 北韓이 주장하는 駐韓美軍撤收 및 核武器撤去에 동조하고 『한반도 긴장

상태완화 및 평화적 統一이 亞細亞 太平洋地域의 安全保障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蘇聯은 『南朝鮮을 承認하지 않을 것이며 政治·外交關係 樹立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韓國에 대해 政經分離政策을 내세우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蘇聯의 對北韓 支持立場은 세바르드나제의 訪北 目的 가운데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최근의 韓·蘇 관계 발전을 의식한 對北韓慰撫공세에 있었던 것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北韓도 고르바초프가 12월 7일 提起한 軍縮등 일련의 平和提案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고나와 國際關係에서의 對蘇연대성을 다짐하고 특히 北韓人民武力部長 吳振宇와 蘇軍참모차장 부토니슬라브 오멜리체브간의 회담이 23일 平壤에서 열려 韓半島軍縮문제와 관련한 蘇聯側 立場이 傳達되었을 可能性을 추측케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세바르드나제의 이번 北韓을 포함한 3개국 巡訪目的이 表面的으로는 日·蘇 外相會議參席에서 비롯됐지만 금년들어 高潮된 고르바초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平和大攻勢의 마무리단계라는 점에서 韓半島 緊張緩和問題에 대한 蘇聯側의 새로운 代案이 제시되었을 可能性도 높여주고 있다.

어쨌던 이번 세바르드나제의 平壤訪問은 脫이데올로기와 新데탕트氣流등 급변하는 國際情勢속에서 고집스러우리만 치 「낡은 共產主義的 體制」에 매달리고 있는 北韓으로 하여금 「폐쇄주의 정책」의 한계성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政策 轉換이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敎訓을 남겨준 뜻있는 行각이었다고 볼수 있다.

〈자 료〉 원문발췌

세바르드나제訪問 공동보도要旨

○ 金永南동지와 에드아르트 세바르드나제동지는 조·소 관계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하고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당면한 현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형제적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 쌍방은 앞으로 예견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동지의 조선방문이 두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金日成동지께서 1988년 7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소련중앙기관대표들, 연동地域 지도간부들과 진행한 상봉이 두나라 사이의 경제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 조선측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받들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 쌍방은 1989년 평양에서 있게될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이 모든 나라 청년들사이의 친선적인 연계를 강화하며 전쟁과 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한 투쟁에서 이들의 노력을 합치는데 힘있는 활력을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담에서는 당면한 국제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평화애호 국가들, 모든 진보적 역량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국제정치생활에 긍정적인 진전들이 나타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 소련측은 존경하는 金日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북남연석회의 소집제안, 3자회담제안,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안,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전변시킬 데 대한 제안 등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선측이 내놓은 모든 평화적 발기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북남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의 적극적인 노력에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 소련측은 또한 지난 11월 7일 조선중앙인민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연합회의에서 내놓은 평화보장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들이 1995년까지 연방제를 실현하여 조선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제안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에 응해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 쌍방은 조선반도 남부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증대되는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존재와 워싱턴·도쿄·서울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기 위한 정책이 이 지역 나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쌍방은 올해가 조선에서 소련군대가 철수한지 40년이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근 반세기 동안 주둔하고 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으며 조선땅에서 속히 미국군대와 무기를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소련측은 남조선에 대한 자기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른바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 유엔단독가입의 방법으로 두개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동들을 반대하였다. 소련은 남조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남조선과 정치적 및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현실의 긴박한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조선측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소련이 내놓은 제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련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 高位級 대표단 海外巡訪 動向

— 楊亨燮, 朴成哲, 黃長燁 등 4개국 巡訪 —

北韓은 지난해 연말경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印度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과 쿠바 등지에 高位級 사절단을 파견하는 訪問外交를 展開했다.

勞動黨秘書 黃長燁이 지난해 12월 초순(12.5~10) 印度를 방문한데 이어 最高人民會議 議長 楊亨燮이 인솔하는 外交사절단이 印尼와 泰國을 巡訪하고 돌아왔다(12.18~26).

또한 쿠바혁명절 30주년(1.1) 기념행사에 부주석 朴成哲이 祝賀사절단을 이끌고 참가한 뒤 비교적 長期間(12.29~1.8) 滯留하면서 쿠바지도자들과 다각적인 接觸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高位級巡訪外交活動은 共通的으로 친선답례형식 또는 경축사절 등의 의례적인 外交活動目的과 함께 방문대상국과 北韓과의 經濟, 外交分野 協力擴大 등 懸案問題들이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印度, 쿠바 등은 非同盟圈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오는 9월 유고비동맹정상회담을 겨냥한

事前接觸의 目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특히 올 여름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이라는 大規模行事を 準備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高位級代表團을 誘致하기 위한 招請交涉이 주요한 목적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訪問對象國마다 青年祝典行事支援을 구실로 행사 참여는 물론 高位級人士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派遣해 줄 것을 간곡히 要請했으며 一部國家들로부터 긍정적인 對答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印度를 방문한 黃長燁이 간디수상에게 祝典行事支援을 요청한 결과 大規模代表團派遣을 確약받았고 쿠바와 印尼로부터도 적극 協調를 다짐받은 것으로 北韓宣傳機關들이 전하고 있다.

기간중 北韓의 巡訪外交活動을 訪問對象國別로 綜合·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黃長燁 印度訪問(12.5~10)

印度 간디 국민대회당 事務總長 「반다리」가 지난 '87년 4월 金日成 生日 行事に 祝賀使節로 참석해 준데 대한 答訪형식으로 印度를 訪問한 黃長燁은 滯留期間중 간디수상과 회담(12.7)한데 이어간디국민당과「協調에 관한 合意書」를 締

結하고 돌아왔다.

北韓宣傳機關들의 이와 관련한 報道를 綜合해 보면 黃은 간디수상과의 會談 때 지난 80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成事를 못본 간디수상의 北韓訪問 招請問題를 다시 거론하면서 확실한 다짐을 요구하고 한편으로 올 여름 平壤 祝典에 대한 적극적인 支援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디수상은 그러나 지난해 2월 北韓總理 李根模가 印度를 訪問했을 때 자신의 北韓訪問招請을 수락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外交經路를 통해 協議」토록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것 같다.

그대신 黃의 訪問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간디 국민대회당 事務總長의 北韓訪問을 약속하면서 平壤祝典에 「大規模代表團을 派遣」하겠다는 약속을 한것으로 北韓宣傳機關들이 전했다.

따라서 北韓은 이번 黃의 印度訪問을 통해 간디수상訪北 招請 및 祝典行事 參與支援問題와 함께 雙方 黨간의 「協調 合意書」締結을 계기로 黨的交流擴大問題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楊亨燮의 印尼, 泰國訪問

最高人民會議 議長 楊亨燮이 지난 연말경 印尼(12.18~

22)와 泰國(22~26)을 巡訪했다. 印尼를 방문한 楊은 수하르토대통령외에도 經濟造成長官, 貿易長官, 財務長官 등과 連鎖接觸을 가짐으로써 雙方 經濟交流擴大問題가 가장 큰 訪問目的이었음을 알수 있게 했다.

실제로 北韓과 印尼는 64년 4월에 修交한 이래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경제교류 또는 協力關係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86년의 경우 교역량이 1천 5백만달러에도 못미칠 정도로 저조했었다. 따라서 北韓은 楊의 이번 訪問을 계기로 雙方間의 經濟交流強化問題를 중점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北韓이 印尼측에 農業技術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北韓產 농기구 또는 電子製品의 輸入擴大를 印尼측에 要請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交流擴大를 圖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키 위해 수하르토대통령에 대해 금년안으로 北韓을 訪問해 주도록 간곡히 요청했으나 印尼측은 『선결해야할 문제들이 山積』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招請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축전에 대해서도 3명의 대표단파견약속만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泰國과는 75년 修交이래 현재까지 常駐代表部設置는 못했지만 빈번한 人的 交流를 통해 '88년에 4천8백만달러 규모의 交易量을 기록하는 등 교역확대기반을 꾸준히 유지해

왔었다.

泰國을 訪問한 楊亨燮은 하원의장과 國會議長, 차티차이 수상방문등 의례적인 인사접촉 이외의 시간에는 주로 석유 화학단지 또는 항만건설현장 등을 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일정을 보냈다.

결국 楊은 이번 巡訪은 最高人民會議 議長으로서의 議員 外交活動보다는 經濟關聯閣僚들과의 접촉을 통해 雙方間의 실질관계개선 또는 擴大를 위한 여건마련에 注力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로 보아서는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던 것 같다.

朴成哲의 쿠바방문

부주석 朴成哲의 쿠바방문은 쿠바혁명절 30주년기념행사 (1.1) 축하사절이라는 外形上의 名分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지난해 서울올림픽 불참에서 보여준 이른바 「형제적 의리와 신의」라는 끈끈한 紐帶關係를 바탕으로한 政治·經濟的 結束關係를 誇示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더우거나 朴이 比較的 장기간 쿠바에 체류(12.29 평양출발 1.8아마나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宣傳機關들이 朴

의 滯留動靜에 관해 대체로 報道를 억제했다는 점에서도 궁금증을 더하게 해준다.

北韓은 지난 '68년의 10주년행사 때 당시 內閣副首相이던 李鍾玉을 사절로 파견한 이래 20년만에 파격적으로 高位級代表團을 파견한 것은 最近 雙方間의 緊密한 關係를 거듭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朴成哲의 이번 쿠바방문은 쿠바와의 친선결속과 시라는 측면과 함께 최근 韓國의 「7.7선언」 이후 이에 자극받은 北韓이 페루, 콜롬비아 등 南美國家들과 關係改善 움직임을 強化하고 있는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쿠바 주변 未修交國家들에 대한 外交的 接近攻勢도 아울러 展開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관측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長期間의 非公開 滯留動靜과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北韓・蘇聯간 「經協」 強化

— 輕工業分野 合營擴大 —

최근 北韓과 蘇聯은 多角的인 經濟・技術協力關係를 強化하고 있다.

최근 蘇聯官營 모스크바放送은 北韓・蘇聯間的 分野別 經濟協力關係를 상세히 보도하는 가운데 雙方은 通商・輕工業・電力・採取・農業分野등에서 활발한 協力交流와 함께 經濟・技術支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모스크바放送이 잇달은 報道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北韓과의 關係협력 내용을 要約해 보면 우선 11월 29일자 모스크바放送은 通商分野에서는 北韓의 對蘇무역액 비중이 全體의 30%를 占有, 蘇聯이 가장 큰 무역상대국임을 強調하는 가운데 蘇聯은 北韓에 機械・設備 및 燃料과 動力을, 北韓은 소련에 마그네샤크링크와 유색금속・피복류를 輸出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放送은 특히 지난 7월 金日成이 蒙古방문길에 나호트카市를 訪問, 蘇聯官吏들과 經濟・貿易部門關係發展에 관한 協議를 가짐으로써 최근 輕工業品 교역이 크게 확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27일자 모스크바放送은 電力분야협력과 관련, 최근 北韓의 電力難解消와 動力體系의 合理的인 運營등을 위해 蘇聯과의 協力を 일층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그 내용은 지난 10월경 北韓의 北倉火電技術者 代表團이 蘇聯의 프리모리에를 訪問, 블라디보스톡급열火電技術陣과 會談을 통해 보일러개선을 비롯한 발전소운영의 합리화 방안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放送은 北韓의 北倉火電과 蘇聯의 블라디보스톡火電이 協力を 맺게된 계기는 두발전소가 건설시기(60년대末)·設備·燃料·運營方法등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協力體系構築은 蘇聯원동지방 동력체계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함으로써 北韓·蘇聯間의 地域協力を 강화하기위한 方案의 하나임을 나타냈다.

또한 10월 25일자 모스크바放送은 輕工業部門에서는 특히 최근 의류생산협력이 점차 擴大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放送은 지난 87년부터 咸興市와 蘇聯흑해 沿岸의 오데사市 피복공장들간에 協同生産體制가 構築돼 의류공동생산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放送은 이러한 의류협동생산체계는 政府次元의 協力協定에 基礎한 것으로서 여기에 參與한 蘇聯側 會社는

「월로다르게 피복공장」·「스완시스한라꼬 아동복회사」등이며 協力形態는 蘇聯에서 의류견본과 原料등을 支援하고 北韓은 이같은 支援을 바탕으로 製品을 生産해 蘇聯으로 반출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放送은 이같은 協力形態로 現在 의류등 輕工業 製品을 生産하는 北韓企業所는 모두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고 北韓은 90년까지 蘇聯의 支援을 받아 피복2억3천벌·뜨개천제품 5백만벌·신발 1천3백만켄레를 생산할 예정이고 이미 男子洋服·원피스·아동내의등 상당輸出物量이 生産되어 蘇聯의 우크라이나市등에 輸出돼 있으며 올해 北韓의 對蘇의류 輸出量은 全體적으로 6천만점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蘇聯은 紡織部門에서도 平南 安州에 蘇聯의 設備支援으로 비날론천을 주로 생산하는 綜合紡織工場을 建設할 豫定으로 있다고 밝혔는데 11월 6일 모스크바放送은 이 工場建設支援과 關聯해 이 工場建設이 3개의 紡織綜合工場建設支援의 하나로서 蘇聯輕工業國立設計研究所에서 主要工程을 담당하고 北韓側은 보일러·정수장등 附帶施設建設을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이 放送은 이 工場建設完工時期를 오는 91년으로 잡고 있으며 첫생산능력은 연간 4천4백여만미터라고 밝혔다.

蘇聯은 北韓과의 採取工業分野 協力關係內容도 밝히고 있는데 지난 11월 29일자 모스크바放送은 蘇聯이 北韓의 主要에너지源인 石炭生産能力擴張을 위한 支援을 強化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放送은 蘇聯이 '89년 上半期까지 8백만루블(1천3백21만 4천달러)相當의 炭鑛 및 선팕설비를 北韓安州탄전에 支援할 豫定이며 主要支援設備內容은 피대식콘베어·적재기·고성능펌프·굴착기·기증기등인 것으로 밝혔다.

農業分野協력과 關聯해서도 11월 29일자 모스크바放送은 北韓과 소련원동지역간 農業生産增大를 위해 協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放送은 지난 10월 중순경 北韓의 農業擔當秘書 徐寬熙 一行이 蘇聯을 訪問, 農業分野協력에 關해 蘇聯側과 意見을 교환한 가운데 蘇聯의 프리모리에지역과 北韓該當地域간의 農業協力連繫를 보다 강화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北韓은 現在 蘇聯의 프리모리에지역의 국영협동농장들에 農業專門家·勤勞者를 派遣, 農産物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生産量의 40%가량을 支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이같은 北韓·蘇聯간의 分野別 協力強化內容은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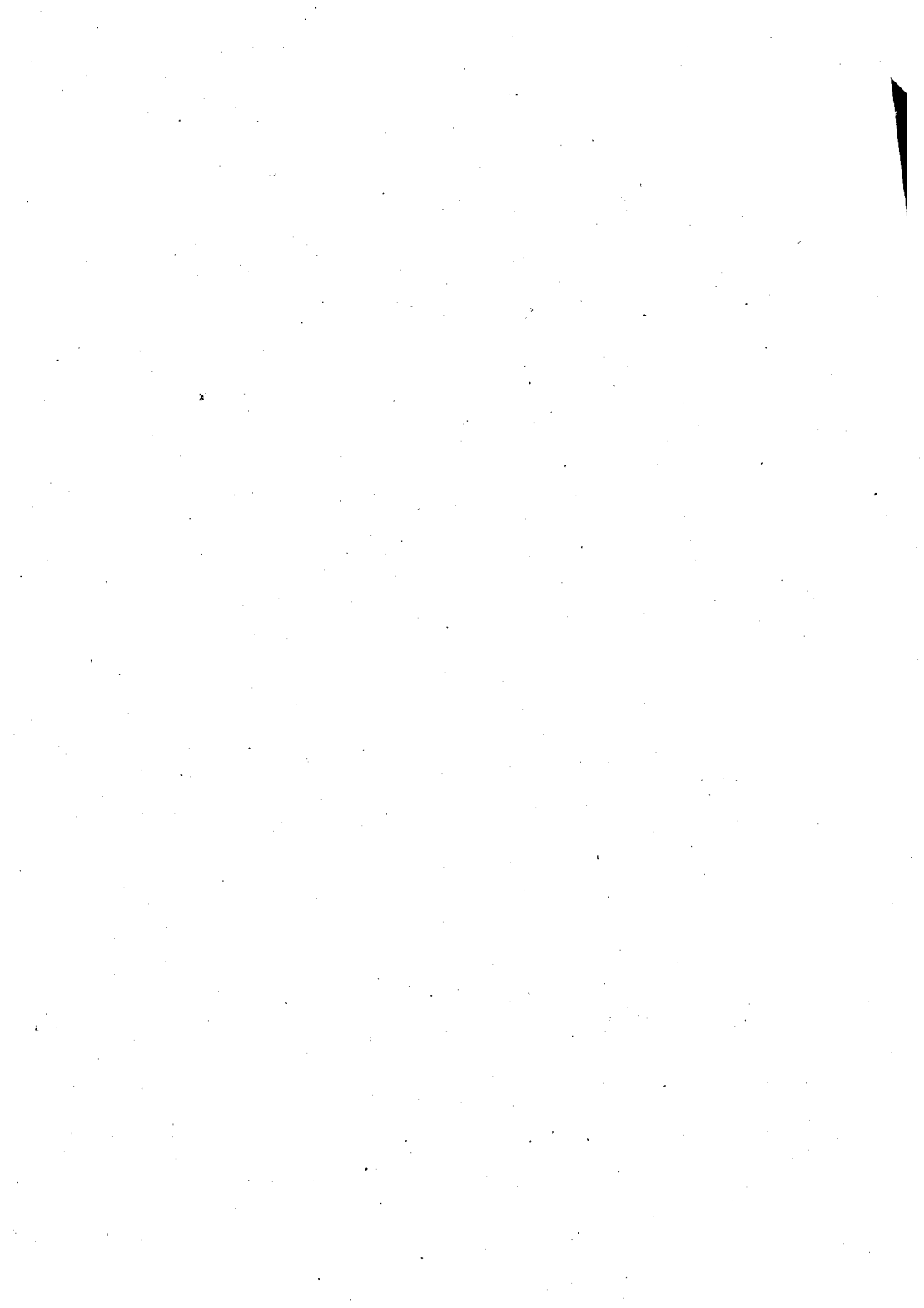
년 10월 金日成의 蘇聯訪問을 계기로 상호 2천년까지의 經濟協力關係를 構築하는 장기적인 協力體制를 마련한데 기초해서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지난 해 6월 相互間 生産的·技術的 連繫協定에 의거, 분야별 경제협력이 구체화·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北韓·蘇聯間에 다방면에 걸쳐 關係協力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것은 蘇聯의 北韓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의도 뿐만 아니라 蘇聯의 원동지역 開發推進에 따른 北韓과의 經濟協力關係를 공고화 함으로써 이지역에서의 北韓·蘇聯 協力體制를 構築하는 한편 北韓측도 蘇聯과의 緊密한 經濟協力關係構築을 토대로 제3차 7개년경제계획추진을 원활히 도모해 보려는 意圖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볼때 北韓과 蘇聯은 앞으로 특히 소련측이 強調하고 있는 원동지역개발에 따른 相互間 協力を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부터 推進해오고 있는 合作등 새로운 經濟協力形態履行을 가속화할 것으로 展望된다.

II. 資 料

- 合營工業部の 新設과 合營事業 現況
- 政務院 改編 背景 分析
- 海外公館長 交替現況
- 主要 經濟課業과 實績分析
- 北韓 UNDP 關係現況
- 對外 協定 締結 現況
- 電子 및 自動화 工場 發展注力



◎ 合營工業部の 新設과 合營事業現況

— 海外同胞투자유인에 注力 —

北韓은 지난 84년 9월 海外資本 및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合營法공포이후 工業·建設·運輸·科學技術·觀光분야에 대한 合營交渉을 적극 推進해왔다. 그러나 現在까지는 그 실적이 比較的 不振한 편이며 그 대상도 投資危險負擔이 적은 서어비스분야와 輕工業分野에서의 合營事業이 점진적으로 實現되고 있을 뿐이다.

北韓은 최근들어 在日朝總聯 및 美洲地域의 海外同胞를 대상으로한 合營교섭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그간 北韓이 추진해온 合營사업실적이 蘇聯을 위시한 東歐 共產圈국가들과의 교섭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그 성과는 蘇聯과의 被服·建設·農業·機械工業分野에서의 小規模 合營工場建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西方국가들과는 단지 프랑스건설회사와의 양각도호텔 (47층규모) 건립에 합의, 建設中에 있는 것을 除外하곤 이렇다할 것이 없는등 北韓의 전반적인 合營사업추진이 그 成果를 못거두고 있는 형편에서 볼때 海外同胞대상의 合營사업추진을 확대함으로써 부진한 성과를 타개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海外同胞對象의 合營事業推進戰略은 北韓의 국가간 對外經濟 開放推進與件이 아직 초보적 段階에 머물러 있을뿐만 아니라 市場性, 對外信用度등 投資誘致環境條件이 미약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北韓이 해외동포를 對象으로한 合營事業推進은 우선 지난 86년 8월경 朝總聯과 공동으로 合營投資事業擴大를 目的으로 國際合營總會社를 설립, 이 會社를 통한 朝總聯系同胞의 對北韓投資斡旋, 情報交換, 契約締結등 합영사업에 관한 業務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投資對象으로는 皮革, 컬러TV, 피아노, 타일등 27個目を 合營事業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고 합영회사제품의 海外市場輸出창구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간 朝總聯系同胞를 대상으로한 合營誘致實績을 보면 낙원백화점, 창광커피점, 大同江자동차조합수리공장, 金萬有병원, 운산금광개발, 平壤골프장, 모란봉합영회사 (피복생산), 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 平壤실크합영회사, 청천강합영회사가 설립돼 있는등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北韓宣傳機關들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操業을 시작한 平壤실크합영회사는 北韓의 비단상사와 朝總聯교포상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年間 수십만미터의 비단천과 수백톤의 비단실을 生産할 수 있는 광목견직기들

과 자동화조사기, 합사기, 연사기들로 구성되어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천강합영회사는 자강도행정·경제지도위원회산하의 무역관리국과 조총련삼영주식회사에서 合作한 것인데 연건축면적이 8천여m²에 달하고 견면제조기, 자동조사기들로 설비돼 있고 동대원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운영)의 경우도 연건평 1만m²로서 연단, 재단, 재봉, 프레스등 생산공정들이 최신설비로 갖추어짐으로써 앞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다양한 의복을 生産케돼 주민의류부족사정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했다. 현재 이같은 합영의류공장은 87년 4월 設立된 대동강 피복공장을 비롯, 모두 5개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北韓은 對北韓投資對象範圍를 擴大, 在美同胞實業人을 相對로한 積極的인 合作投資誘引活動을 전개, 현재 北韓당국은 在美同胞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무역, 관광등의 업무를 맡게 될 3개합영회사의 설립을 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합영회사는 高麗商業銀行·金剛山國際貿易開發會社·金剛山國際觀光會社로 알려지고 있으며 金剛山貿易開發會社의 경우 金剛山에 建設中인 호텔및 附帶施設工事を, 金剛山觀光會社는 해외교포들의 北韓訪問과 投資相談

을 주선토록 하며, 高麗商業銀行은 海外僑胞만으로 資本을 造成해 海外僑胞民間會社와 현지회사들간의 투자창구역할을 遂行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北韓은 合營事業推進에 박차를 가하기위한 조처의 一環으로 지난해 11월경 정무원 내에 獨立部署로 合營工業部(부장 채희정)를 신설·운영하고 있는데 이 部署는 既存의 對外經濟事業部合營指導局을 擴大·改編한 것으로 外國과의 合營·合作사업을 總括·專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國際合營總會社 總社長 김성환은 合營工業部の 기능과 역할에 대해 『合營에 관한 유일한 접수구로서 合營의 調印·契約으로부터 시작하여 合營事業推進에 필요한 原料·資材·協同生産品保障등 모든 關聯事業을 統一的으로 장악 指導하는 國家部署』라고 언급함으로써 北韓이 合營을 위한 교섭과 추진전반을 정부기구차원으로 격상시킴으로써 外國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유인해 보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北韓은 合營事業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임을 나타내면서도 『다른나라에서는 經濟特區같은 것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特區를 내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현행 經濟體制의 範疇內에서 合營事業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등 그들의 開放政策이 特殊性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北韓當局이 海外資本 및 技術導入을 積極化하기 위해 推進機構擴大와 더불어 協力對象範圍를 擴大해 海外同胞들의 投資誘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선 合營推進機構를 政府機構로 擴大改編함으로써 對外交渉의 一元化를 圖謀하며 効果적인 投資誘引活動을 推進함으로써 合營事業不振을 타개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北韓의 對外投資與件이나 環境未備에서 오는 海外의 投資忌避를 日本・美國內 일부 海外同胞를 상대로 적극적인 對北韓投資를 誘導함으로써 그 成果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相對國企業人들의 投資意慾을 유발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관계개선까지도 布石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다각적인 努力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合營事業추진은 여전히 制約條件이 산재해있어 그 성과여부는 불투명하다.

北韓은 合營投資의 방침을 『필요원료의 90% 이상을 國產으로 공급하고 있듯, 자립적 民族經濟의 토대가 확고히 構築되었기 때문에 合營法을 제정·합작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主張하고 있듯이 自力更生原則을 토대로 海外投資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合營推進에 대해서도 『이것이 經濟體制의 改革이라든가 경제노선의 方向轉換등과 같은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은 北韓의 合營事業추진이 體制面에서 制約性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투자유인측면에서도 北韓은 시장이 협소하고 資源이 貧弱하며 經濟運營方式도 官僚的 중앙집권체제를 固守하고 있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所有制度·市場機能등 資本投資에 의한 利潤保障裝置가 확실히 선행되지 않음으로써 合作·合營의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점까지 감안한다면 現在 推進하고 있는 이른바 母國投資形式의 投資誘引역시 그 成果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 政務院 改編背景分析

— 合營工業部·電子自動化委·都市經營部 新設 —

최근 國際情勢變化 및 南北關係改善霧圍氣가 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北韓도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에 새로운 部署를 新設하는 등 外部世界變化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지난해 上半期까지만 해도 中·蘇 및 東歐圈에 擴散되고 있는 改革·開放무드에 애써 외면하며 金日成父子體制強化에 注力해왔다. 즉 2백일전투와 같은 社會主義勞力競爭運動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革命的 체제운영방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下半期들어 經濟注力方向을 既存의 1기간산업분야중심에서 첨단산업분야로 급선회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政務院의 주요책임자를 交替하고 대외지향적 政策業務를 管掌하는 부서들을 新設하는 등 발빠른 政策布石을 보이기 시작했다.

北韓은 지난해 11월 26일 政務院내에 合營公業부를 新設한데 이어 12월에는 電子自動化工業委員會를 新設했으며 금년들어 1월 20일에는 도시경영부를 신설했다. 이러

한 잇달은 政務院部署의 신설은 기존의 조직개편성격과는 다소 색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3개의 新設部署들이 다같이 새로운 政策推進에 발맞추어 새롭게 만들어진 점이다.

合營工業部만해도 지난 84년 9월 合營法 制定이후 不振을 거듭해오던 合營事業이 朝總聯을 포함, 在美교포실업인들에 의해 活氣를 띠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에 적극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可視化한 것이고 電子自動化工業委員會는 黨6期14次全員會議(11.28)에서 결정된 기계 및 전자공업분야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都市經營部는 오는 7월의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對備해 平壤市를 包含한 地方都市開發事業을 効率的으로 운영하며 대외선전과 觀光효과를 높여보고자 하는 뜻에서 新設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3개 新設部署를 포함해 北韓의 政務院部署는 현재 15개委員會, 21개部, 1개院으로 改編되었다.

당초 北韓의 8기내각이 구성될 당시(86.12.27)에는 14개委員會와 15개部, 1개院으로 출범했으나 지난 2년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증개편작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주로 經濟部處들에 대한 調整에 주력했다.

北韓은 제8기내각을 구성한 이래 2년여동안 무려 5~6차

례에 걸친 經濟部處에 대한 손질을 가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당초의 경제내각 출범의지를 투영시키지 못한채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상의 차질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반증시켜주고 있다.

예컨대 제8기내각구성당시의 정무원부서는 종래 7기내각 때의 15개委員會, 10개部, 1개院에 비해 4개부서를 증편한 것이었는데 이때에 신설된 부서로는 原子力工業部和 船舶工業部 등이었고 黨秘書局에 편입되어있던 社會安全部가 歸屬되었다.

또한 政務院部署 서열도 外交部, 대외경제위원회, 농업위원회, 건설건재공업위원회, 國家計劃委員會 등의 순으로 새로이 設定하는 등 經濟內閣의 성향을 강력히 浮刻시켰다. 이와함께 從來에 採取工業委員會와 교통위원회에서 자원개발부와 철도부를 각각 獨立 復活시켰는데 이것은 北韓內의 만성적인 燃料·原料難을 해소함으로써 全體產業分野의 생산정상화를 꾀해보자는 의도였다.

다른 한편 금속 및 機械工業委員會를 金屬工業部和 機械工業部로 분리(87.10.24)했는데 이것은 85년 11월의 유관부서 통폐합조치일환으로 金屬工業部和 제1, 제2기계공업부를 하나로 묶은지 2년만에 다시 分離시킨 것이다. 北韓은 또 88년 6월에도 제7차내각당시 유사부서 통폐합조치에 의

해 單一部署로 묶었던 건설건설공업위원회를 建設部로, 化學 및 輕工業委員會를 輕工業委員會와 化學工業部로 각각 分離, 獨立部署로 개편했다.

北韓이 당초 政務院유관부서들을 통폐합시킨 의도는 부서간의 協同體制를 강화시켜 生産 및 관리효율성을 증대시켜보자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이를 다시 專門性爲主의 부서로 分離시킴으로써 經濟部門間的 不均衡과 政策遂行上的 混線을 뚜렷이 반영했다.

또한 從來의 政務院部署 改編過程中 두드러진 특징은 要職人物들을 登용함에 있어 變化하는 國際經濟흐름이나 現代化된 先進經濟意識을 갖춘 人才발탁없이 既存의 黨僚 출신 테크노크라트들간의 자리바꿈에 주력한 인상을 주었다.

비근한 예로 제8기내각을 주도하기 위해 姜成山으로부터 총리바튼을 이어받은 李根模를 비롯해 '88년 6월 經濟部署 개편시에 登用된 人物들을 보면 國家計劃委員長 洪成南, 對外經濟委員長 金達鉉, 輕工業委員長 金福信, 化學工業部長 金煥 등 대부분의 經濟閣僚들은 모두가 6차당대회(80. 10)이래 이른바 主體經濟를 基調로한 제2차7개년계획 수행시에 핵심적인 役割을 遂行해 왔던 黨僚출신 經濟官吏들

이다.

따라서 이들 제8기내각각료들의 인물성향이 北韓經濟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自力更生을 앞세운 自給自足經濟方式의 思考로 체질화되어 있는 한 閉鎖적인 主體經濟스타일에서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려운 立場이었다.

실제로 제8기내각의 李根模經濟팀이 지난해 12월 延亨默內閣으로 바뀔때까지의 經濟注力方向은 제3차7개년계획의 當面課業으로 제시된 電力, 石炭, 金屬工業을 비롯한 基幹工業部門과 함께 主要建設事業들을 목표대로 達成하는데 있었다. 이를위해 北韓이 '88년 한해동안 北韓全域을 兵營化하다시피하며 전주민들을 동원한 가운데 소위 2백일전투를 대대적으로 展開하며 전주민의 노력영웅화를 試圖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던 北韓이 지난해 12월에 돌연 李根模를 政務院總理에서 전격해임하고 延亨默을 기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經濟政策注力方向을 제시하는가 하면 새로운 經濟部署를 增設하는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政務院總理 및 部署新設의 배경에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黨6기14차전원회의와 15차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는 勞動黨指導層의 意中을 反映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엿보이게 한 것이었다.

즉 黨6기14차전원회의에서는 工作機械 및 電子自動化工業發展問題를 새로운 經濟注力方向으로 決定한 것이었는데 이후 10여일만인 12월 11일에 15차전원회의를 통해 政務院總理 交替를 斷行했다.

이와 같은 시기에 11월 26일 合營工業부와 12월 28일 電子自動化工業委員會가 新設되었다.

北韓이 이처럼 對西方交流 및 協力이 불가피한 尖端產業分野를 黨政策化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經濟部署新設등을 斷行한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經濟現實에 비추어 볼 때 큰 變化를 試圖한 것이라 볼수 있다. 다시말해 北韓은 뒤늦게나마 國際的 經濟潮流를 認識하고 적극 대응하려는 자세전환을 보인 것인 同時에 自身들의 從來 閉鎖的 經濟政策에 限界點같은 것을 實感한 증거라고 볼수 있다.

政務院總理에 새로 기용된 延亨默을 비롯한 合營工業部長 蔡熙正, 電子自動化工業委員長 박세운 등은 北韓經濟官吏들 중에서도 國際感覺과 專門性を 겸비한 인물들로 알려진 黨僚출신 테크노크라트들이다.

더우기 이들은 金正日이 黨權을 主導하기 시작한 80년10월 6차당대회 이후 부상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향후 이들의 향배는 金正日의 통치스타일을 점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海外公館長 교체現況

北韓은 지난 12월初 불가리아를 비롯한 네팔·베트남·말타·北예멘·잠비아등 6개국의 駐在大使를 각각 交替했다.

이번 交替된 6개국 駐在大使 異動을 포함하면 北韓은 올해 들어 총20개국의 海外公館長을 交替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참조).

이를 시기별로 보면 금년 上半期 중 스위스駐在大使를 비롯해 9개국의 海外駐在大使를 交替했으며 下半期들어서는 헝가리·中國·이집트大使交替에 이어 12월들어 連鎖적으로 6개국 大使를 交替했다.

地域別로 交替現況을 보면 亞洲地域에서 中國·베트남·네팔·방글라데시, 中東地域에서 北예멘·이집트, 아프리카지역에서 잠비아·감비아·케이프베르데·세네갈·모잠비크·카메룬, 東歐地域에서 불가리아·헝가리, 中美지역에서 멕시코·베네수엘라·자메이카, 그리고 西歐地域에서도 스위스·말타·오스트리아 등이 包含되어 있다.

이들 交替對象國을 보면 北韓과의 單獨修交國이 8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국은 韓國과의 競合修交關係에 있는

國家들인 점에서 이들 競合修交國에 대한 積極的 外交布石의 一環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海外公館長交替에서 눈에 띄는 特徵은 金正日의 이복동생인 金平一을 지난8월 헝가리주재대사로 發令했다가 헝가리정부가 서울에 常駐代表部를 開設한데 따라 이에 不滿과 抗議表示로 召還하고 金平一을 다시 불가리아 大使로 發令한 일이 주목됐다.

그리고 交替된 新任大使들의 면면을 보면 中國大使 朱昌俊이 前유고대사직을, 잠비아大使 신병철이 前 부룬디 대사직을 베트남 대사 이흥이 베트남대사관1등서기관경력을 지니고 있을뿐 나머지 대부분은 직업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이 짧은 新人外交官들을 起用, 세대교체의 흐름을 반영했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단1건의 기존대사들의 수평이동도 없었으며, 交替 對象國家들의 경우 주로 韓國과의 關係改善이 두드러진 나라들인 점이 特徵的이었는데 이는 對韓外交牽制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특히 北韓이 11월말경 아시아·공산권국가해외공관장들을 平壤에 召集·外交實務會議를 개최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 이를계기로 6개국에 대한 大使交替가 있는 것은 定例的인 인사조치라기 보다는 韓國의 急速한 外交力 伸張

에 따른 그들 나름의 外交戰列을 強化하기 위한 조치로 評價되었다.

어쨌든 北韓의 이같은 大使交替背景에는 急激한 國際情勢變化에 대응하면서 특히 韓國과 아시아·공산권국가들과의 關係進展이 급속도로 展開되고 있는 事態發展趨勢속에서 그들의 對韓外交劣勢를 最少化시키고 이른바 國際革命力量強化라는 外交的 立地발판을 構築해 나가려는 데 보다 큰 뜻을 둔 현실인식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아시아·공산권국가주재대사회의소집을 통해 周邊情勢變化에 따른 對外政策問題가 중심으로 협의된 것으로 관측돼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北韓外交政策의 향방과 함께 이들 海外公館長들의 外交活動의 變化여부가 주시된다.

이에 덧붙여 北韓의 海外公館長交替는 北韓이 당면한 經濟建設遂行을 위한 外國과의 「經協」을 크게 強化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中·蘇의 北韓에 대한 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對外政策遂行的 前衛的 역할을 擔當하고 있는 海外公館長들의 交替를 통해 침체된 외교분위기를 刷新하고 적극적인 外交活動을 展開토록 함으로써 北韓의 外交的入場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이와함께 최근 北韓의 外交懸案으로 대두되고 있는 韓國과 共產圈國家들의 關係進展趨勢를 보면 우선 헝가리정부의 경우 이미 常駐貿易代表部가 開設된 데 이어 韓國과의 外交關係를 正式大使館級으로 격상한 段階에 있다.

또한 유고·불가리아·폴란드등도 韓國과의 貿易事務所 開設에 合意, 常駐代表部 開設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이들 나라들과의 外交關係도 時間問題로 되고 있어 北韓의 外交基盤이 약화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편 南北韓간의 修交現況과 公館設置 內容을 비교해 보면 우선 修交면에서 北韓이 지난 10월 韓國單獨修交國인 콜롬비아와 修交에 合意함으로써 全體修交國이 1백1개국으로 늘어났지만 韓國의 1백 30개국수교와 비교하면 아직도 對韓外交劣勢를 나타내 주고있다.

특히 이번 北韓과 修交合意한 콜롬비아는 中南美에서 유일한 6.25참전국으로서 韓國과의 전통적인 유대關係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볼때 北韓과 修交에도 불구하고 實質的인 關係發展은 미지수라고 여겨진다.

현재 南北韓간의 修交內容을 보면 韓國이 單獨修交國 60개국을 포함, 1백30개국과 修交關係에 있고 北韓은 31개국의 單獨修交國을 포함해 1백 1개국과 修交를 맺고있다.

그리고 南北韓의 海外公館進出 現況도 常駐大使 94 : 73,

通商代表部 4 : 8, 총영사 35 : 4로 韓國이 對北優位를 확보하고 있다.

〈자료 1〉 南北韓修交現況(88.12月 現在)

구 분	韓 國	北 韓
수 교 국	단 독 60	30
	공 동 70	
계	130	101
상 주 대 사	94	73
겸 임 대 사	36	28
통 상 대 표 부	4	8
총 영 사	35	4

〈자료 2〉 海外公館長 교체현황

日 字	교 체 국	前任者	後任者	비 고
1.18	스 위 스	최진숙	이 철	
2.12	모 잠 비 크	차명국	이종명	
2.15	세 네 갈	—	신병철	○감비아 케이프베르
3.23	멕 시 코	—	박중국	데
4.27	자 메 이 카	—	신명호	(6.4)겸임
5.27	오스트리아	—	박시웅	○베네수엘라(5.19)
7.7	카 메 룬	—	길문영	겸임
8.14	형 가 리	안민수	김평일	
9.26	中 國	신인하	주창준	○11월소환, 현재 공석
10.8	방글라데시	고련식		○공석
11.12	이 집 트	오창림	김용섭	
12.7	네 팔	장광선	안희정	
12.8	베 트 남	김동섭	이 흥	
12.9	말 타	김치섭	김재원	
12.10	北 예 멘	윤덕웅	최인섭	
12.10	잠 비 아	최학래	신병철	
12.11	불 가 리 아	하동윤	김평일	

◎ 主要經濟課業과 實績分析

金日成은 新年辭를 통해 '88년도의 課業으로 「政權創設 4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는 것을 내걸고 중점 經濟課業으로 ① 電力工業에서 태천, 위원, 순천, 서두수발전소의 공사를 上半期中에 完了할 것과 金剛山, 위원, 희천, 남강, 금야강발전소 建設推進을 내놓았으며 ② 石炭工業部門에서 安住, 順川, 北部 地區炭鑛을 대대적으로 擴張 및 開發 ③ 金屬工業部門에서 순천비날론 및 사리원 카리비료공장 건설주력 ④ 輸送部門에서 鐵道の 전기화 및 중량화 추진 ⑤ 農業部門에서 農村 4대 기술혁명 推進과 干瀉地 開墾, 새땅찾기 운동 전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밝힌바와 같이 政權樹立 4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제3차 7개년계획이 着手된 2차년도인데다 88년올림픽의 共同開催,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 準備등 經濟面에서 추진해야 할 重大한 課業들이 山積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중요한 '88년도의 經濟課業을 추진함에 있어 北韓當局은 經濟開發을 추진함에 있어 北韓當局은 經濟

開發을 위한 투자의 優先 또는 集中, 經濟發展을 위한 政策的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經濟發展을 위한 과감한 투자나 政策的考慮가 별로 없었고 연초부터 2백일전투를 展開, 勞働者·農民 등 住民들의 勞力動員 극대화에만 힘쓰고 있었다.

北韓當局이 금년도 經濟課業을 제시하면서 과거처럼 實現可能與否는 考慮하지 않고 내놓았던 것과는 달리 몇 개분야에만 集中的으로 投資할 것과 推進중에 있는 建設事業의 마무리등 비교적 實現性에 관심을 둔 經濟課業을 내놓아 매우 주목되었다.

그러나 北韓當局이 이러한 經濟課業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는 첫째, 대내외 資本調達能力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投資를 擴大할 資本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準備에 그나마의 資本을 集中的으로 投入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금년도 北韓의 經濟課業은 投資의 바탕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없이 課業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勞働力の 最大動員, 徹底한 思想教養事業이고 여기에 곁들여 勤儉·節約鬭爭, 폐품수집운동, 원가절감운동을 벌리는 길인 것이다.

금년도 北韓의 對內動向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2백일 전투」라 할수 있는 데 이 2백일전투는 2월 20일 시작하여 9월 9일까지 1차전투가 끝났고 9월 10일부터 내년 4월까지 2차전투가 전개되고 있어 北韓住民들의 苦衷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짐작케 했다.

그외에도 北韓 當局은 올해에 地方豫算制의 擴大發展이나 國家財産保護強調, 忠誠의 支援事業, 새속도창조운동등 前例없이 思想性 強調와 革命的 鬭爭을 要求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 역시 北韓의 經濟事情, 財政事情이 매우 어려웠던 때문이고 주민들의 反撥이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88년도 주요경제성과

금년도 北韓經濟는 資本의 부족, 기술의 落後등 가장 어려운 局面에서 시급히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몇개부문에 대한 集中投資와 推進중인 建設工事의 마무리작업에 注力하는 課業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성장면에서나 實質面에서 크게 내세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北韓經濟는 어느 정도의 成長도 기록했고 實績을 올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代表的인 이유로서는 첫째 農業部門에서 84년이후 계속되던 흉작의 惡夢에

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事實이고 두번째로는 비록 北韓 住民들이 많은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2백일간의 勞力戰鬪,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새로운 2백일전투의 延長 등은 금년도 北韓의 經濟目標을 遂行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세번째로는 對外貿易面에서 약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事實인데, 그중에서도 蘇聯·中國·日本과의 交易이 크게 늘어났고 在日 朝總聯과의 合作事業, 蘇聯·中國과의 合作, 鴨綠江·豆滿江을 중심으로 한 邊境무역의 增大 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貿易面에서의 成果가 있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먼저 農水産業部門의 實績 및 成長을 살펴보면 食糧生産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고 있는 洪水나 가뭄, 냉한의 피해가 올해에는 없었고 연례적으로 찾아오던 태풍마저 없어 食糧生産을 비롯한 農業生産發展에서 매우 좋은 조건을 구비, 모처럼 農業生産에서 높은 成長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農業生産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도 北韓의 農業生産關係 宣傳·煽動이 전에 없이 늘어났는데 지난 10월초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現狀을 중심으로 評價해 보면 農業部門 成長은 87년도의 2.6%보다 훨씬 높은 4%정도의 成長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량생산량도 정곡으로 換算하여 약 5백 15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의 食糧生産이 이처럼 늘어나게 된 것은 그야말로 良好한 기후조건에서 얻은 純粹한 自然增加 現狀이고 지난해까지의 극히 不振했던 記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成果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食糧生産이 늘어나고 높은 成長을 維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工業部門에서의 成長 및 實績과 關聯, 지난 9월 13일자 朝鮮中央通信社를 통해 그간 실시해왔던 2백일전투의 成果에 대해 대대적으로 宣傳했고 北韓의 勞動新聞을 비롯한 宣傳媒體를 통해 연일 2백일전투의 業績을 過大宣傳하고 있다.

朝鮮中央通信은 『2백일전투계획이 모든부문에 걸쳐 빛나게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개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工業生産이 전년도에 비해 1백 22% 성장되었고 석탄생산도 1백 22%, 철광석은 1백 17%, 통나무 生産 1백 38%, 철도화물수송 1백 27%, 대형선박수송 1백 45%, 工作機械生産 1백 11%, 비날론 1백 37%, 水産物 1백 25% 生産增大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2백일전투기간중 2백일전투의 주공전선인 基

本建設部門에서 政權創設이후 最大의 成果를 올렸다고 자찬하면서 建設部門의 成果內容으로 電力施設 能力이 1백 20만KVA로 늘어났고 8호제강소와 청화제련소의 新設, 마그네샤크링카 生産能力 增大, 黃海제철소 擴張工事が 이루어졌다고 했던 것이다.

또한 輸送部門에서 海山-만포간 6백 30여리의 鐵道新設工事が 이룩되었고 대형화물선 및 漁船을 6백여척이나 建造했으며 총 8천 7백 50정보의 干潟地開墾이 있었고 안골체육촌을 비롯한 平壤시가지 整備作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같은 朝鮮中央通信의 2백일 戰鬪 成果發表를 보면 어느 정도의 成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중에서 電力·金屬·輸送部門에서 특히 成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간 北韓이 發表한 대표적인 實績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승호리시멘트공장에 30만톤 生産能力 增設, 북부고산지대에 새로운 광맥발견, 平壤-開城間 고속도로 建設, 낙원기계공장에서 4m³유압식 압축기생산, 태천·위원발전소 部分操業, 구성방직공장에 1만추 증설, 10월 30일 工場에 베어링생산기지 竣工, 낙연광산 청화제련소 建設, 신형 TV 大同江 288형 製作, 은율·강령干潟地 開

墾 등이다.

그러나 2백일전투 期間을 통해 일부분에서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타 많은 부분에서의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아지고 北韓經濟 全般的 成長면에서도 그렇게 높은 成長을 기록했다고는 볼수 없다.

끝으로 금년도 對外貿易部門의 成果를 살펴보면 蘇聯·中國·日本과의 交易과 泰國·이란 등 아시아국가와의 交易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貿易赤字 現狀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信用度도 여전히 낮은 狀態에 있어 北韓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北韓이 11월 26일 政務院傘下에 合營工業部를 設置 外國과의 본격적 合營事業推進을 구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동대원피복공장, 모란봉합영회사, 청천강합영회사, 희천제사공장 등 많은 合作事業을 發足시키고 있고 中國·蘇聯과도 合作事業을 벌리는 등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움직임을 綜合해 볼때 올해의 北韓經濟는 지난해 보다는 훨씬 높은 成長을 기록했고 實質的인 成果도 여러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겠으나 沈滯된 北韓經濟의 活性化는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 보

여진다.

〈자 료〉 분야별 과업추진실태

電力部門

〈제시된 과업 또는 목표〉

○ 태천·위원·서두수등 수력발전소와 순천 화력발전등의 조기완공 및 공사독려로 1백 20만kw 發電能力提高

〈推進實態〉

○ 태천발전소의 1호발전소 全部와 2호발전소의 2개발전기 完工 및 操業開始로 全體計劃 80만kw중 40만kw可動中 (8월)

○ 서두수발전소 水原擴充工事 完了(터널 40여리, 철관 30여리등 지하수로 完工으로 發電能力 擴大寄與. 8월)

○ 순천 화력발전소(20만kw계획) 일부 완공가동(3호기)

○ 기타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석탄부문

○ 안주탄광, 순천, 북부지구 등 주요탄광 개건확장으로 석탄증산 토대확충을 과업으로 제시했으나 기간중 뚜렷한

실적및 성과보도 없음

금속 및 기계공업

〈제시된 과업 및 목표〉

- 김책제철 2단계확장 연내 완료
- 천리마제강소 5백만톤 생산능력 신규조성
- 무산광산 철광석 연간생산목표 1천만톤으로 확장제시

〈실적 및 성과〉

- 김책제철 2단계확장사업 일부 完了. 대형轉爐·연속造塊機·가열로계통 등 34개 대상건설 完了(3월)
- 平北 完州베아링공장에 10월 30일 工場完工(87년 着工)으로 베아링수입 一部 代替可能(8월)

化學 및 纖維部門

〈제시된 과업 및 목표〉

- 순천 비날론공장 종합화학단지 조성박차
- 사리원 카리비료공장·청진화섬 등 建設推進

〈실적 및 성과〉

- 순천비날론공장 2단계공사(연산 10만톤) 추진중. 카바

이트爐·석회爐·화력발전소 일부 등 完工 操業

○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내에 비료공장(연산 9만톤 규모), 가성소다공장(순도 1백% 기준 연간 약 12만톤 규모), 단백질 사료공장(연산 5만톤 규모)등을 후반기에 일제히 착공

○ 청진화섬 人絹스프생산능력 1.2배 확장공사 完了로 연간 3만톤 生産能力保有(10월)

○ 龍城紡織 시설확장으로 연간 약 2만톤 방적사 생산능력 조성(8월)

○ 소련지원하에 안주방직공장 건설추진(91년 완공목표)

○ 신의주화섬 인견스프생산능력 2배 확장공사 추진(현재 2만톤규모)

○ 기타 조총련상공인과 합영으로 모란봉 합영회사의 동대원 피복공장과 평양비단합영회사, 청천강합영회사, 희천제사공장이 각각 9월 초순에 조업시작.

수송부문

<실적 및 성과>

○ 북창—明鶴(16km) 구간 전철화완공

○ 북부철도 1단계구간인 滿浦—惠山간 2백 52km 완공

개통에 이어 이 구간 전철화 공사 착공(9월)

○ 白岩-茂山간(1백 87km) 철도중 백암-도내간(25km)
전철화 완료(11월)

○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공사 노반공사 완료

기 타

○ 광복거리 건설

平壤市內 서남부지역 일대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광복거리에는 2만 5천여세대의 주택단지(아파트)를 비롯해 숙박 및 慰樂·體育·道路·便宜奉仕등 신시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86년부터 推進되고 있는 이 事業은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전역에서 동원된 청년학생 근로자들이 노역장에 투입되고 있다.

○ 청춘거리조성

體育·文化地域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 지역에는 9개의 각종 실내외 경기장과 피로회복관·체육인 전용여관(선수숙소) 식당등이 마감공사중

○ 능라도 종합경기장 양각도축구장도 마감공사중이며 청년극장·평양국제영화관 등도 외부 및 무대시설 설치작업

중이다.

- 문화·예술행사를 위해 평양옥류교와 대동교 사이의 양쪽 강변에 수상무대 설치중
- 대성산 유원지에 민속놀이장 건설

◎ 北韓 · UNDP 관계 現況

—올들어 5백 28만불규모 지원합의—

최근 北韓은 유엔직속기구의 하나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協調와 자금지원 아래 식량문제연구활동과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시설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北韓과 유엔개발계획간에 조인된 分野別 協調 및 자금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農業分野에서 지난 10월 6일 平壤에서 北韓貿易부와 주재유엔개발계획대표간에 약 52만불 자금지원규모의 과일생산 및 저장기술개선을 위한 협조와 70만불자금지원규모의 벼육종개선을 위한 협조에 각각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北韓은 유엔개발계획의 協力支援아래 종축기술자들을 선진축산국에 파견하여 기술습득을 시키는 한편 우량종축을 도입, 소·돼지·양등의 우수한 축산품종을 개발·확대보급하며 육류 및 우유등의 증산을 도모하는 내용의 北韓·유엔개발계획간 축산개발계획에 관한 協調文件에도 합의했다.

이 部門의 지원자금규모는 약 50만불 정도인 것으로 전

해졌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電力부문에서도 10월 26일 유엔개발 계획과 協調協定을 조인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약 80만불 자금지원규모의 변압기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변압기생산시설 現代化事業은 유엔개발계획의 資金支 援으로 유엔공업개발기구가 향후 3년간 고성능 변압기설계 및 生産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공장은 大안 중기계연합기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같은 北韓·유엔개발계획간 협력내용에서는 北韓 이 농산물증산등 주민식생활 向上과 電力등 주요 産業의 生産施設 現代化등 이들 분야의 기반확충을 위해 유엔개발 계획과의 協力을 크게 強化하고 있는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北韓·유엔 개발계획간의 協力事業推進은 北韓이 79 년 6월 이 기구에 가입한 이후 활발한 지원협력논의와 함께 특히 80년 12월 유엔 개발계획의 平壤주재원 상주를 계기로 구체적 協力事業이 착수, 본격화됐다.

北韓은 유엔 개발계획의 1차對北지원기간인 지난 80년부터 86년까지 약 2천50만불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지원자금을 바탕으로 輸送·通信·工

業·농수산업분야에서 시설개선과 현대화에 주력했다.

이 기간중 유엔 개발계획으로부터 자금지원에 의해 建設된 主要 시설내용을 보면 6백만불 규모의 平壤반도체시험 공장을 지난해 4월 완공했으며 이 半導體試驗工場은 구체적인 施設規模나 수준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北韓의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科學院傘下 전자공학연구소의 시험공장으로서 각종 集積回路를 開發·生産하는 한편 이 부문 기술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간중 北韓은 2백 87만불규모의 平壤·신성間 95km구간을 자동화함으로써 鐵道輸送力을 보장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도 北韓은 유엔 개발계획과 총 1천5백14만불 규모의 자금지원에 합의, 농산물증산·輕工業生産強化 등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이 자금을 적극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들어 추진되고 있는 北韓·유엔개발계획간 事業內容을 보면 現在까지 총 9건의 協調文件에 합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증산을 위한 사업이 5건, 양어 사업 1건, 전기기계 및 香料 등 輕工業生産強化 3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北韓·유엔 개발계획간 추진사업의 구체적 內容은 채소생

산 현대화사업(60만불 규모)·전기기계 측정시험소설치(60만불 규모)·향료생산기반강화(1만불 규모)·토양 및 식물체분석시험소(70만불규모)·양어과학연구소과학화(85만불 규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韓이 이처럼 유엔개발계획의 자금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식생활향상과 산업기술연구, 그리고 施設現代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우선 만성적인 食生活難을 改善하고 전기기계 분야를 비롯, 변압기 생산분야의 現代化에 主力함으로써 落後된 이들 분야의 生産與件을 개선·생산력을 보장해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北韓·유엔개발계획간의 協力事實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北韓이 農業등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美國·日本 등 대부분 서방권국가들의 주도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기구로부터 協力과 자금지원을 依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北韓이 종래 유엔개발계획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을 「帝國主義的 착취도구」로 매도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이같은 상반된 입장은 北韓의 經濟現實이 다급함에 처해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北韓은 약 50억불규모의 대외채무불이행으로 인해

外國으로부터의 차관지원이 거의 斷絶된 상태에서 海外로부터의 資本 및 기술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實情을 감안해 北韓은 유엔개발계획과의 協力強化를 시도함으로써 사실상 서방자금이 이 국제기구를 통해 間接流入되는 효과를, 즉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經濟建設을 圖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볼 때 北韓은 앞으로도 對西方圈과의 關係改善不透明속에서 西方으로부터의 資金獲得의 방편으로 이같은 國際經濟機構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國際通貨基金(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 國際金融關聯機構加入을 적극 추진, 산업현대화등 경제건설에 따른 資金支援獲得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65년까지 유엔 및 산하기관활동으로서 유엔특별기금·유엔기술원조확대계획·유엔자체 예산에 의한 대규모 支援事業·중소규모 지원사업계획을 지원하는 원조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66년 발족된 기구이며 주로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을 지원해오고 있다. 北韓은 유엔산하의 이 機構加入외도 지난 73년 유엔직속 기구인 유엔통상개발회의(ONCTAD)에 加入한 이래 현재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전기통신연합(ITU)·유엔교

육과학문화기구(UNESCO)·만국우편연합(UPU)·세계기상기구(WMO)·국제해사기구(IMO) 등 유엔직속기구나 專門機構 19개 가운데 11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다.

◎ 對外協定締結現況

지난 한해동안 北韓은 蘇聯·中國등 공산권국가들, 그리고 非同盟圈서 親北性向국가들과의 親善關係增進과 더불어 經濟·文化·貿易分野 등 다방면에 걸친 관계협력발전을 도모하는 외교활동에 주력한 결과로 12월 현재 31개국과 모두 96건에 달하는 각종 協定을 조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北韓이 88년도에 체결한 對外協定을 진영·지역·국가별로 보면 우선 共產圈국가들과의 체결건수는 59건으로 전체의 61%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7건은 주로 아프리카·中美·中東·亞지역 內的 주로 親北性向국가들과의 關係協定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라별로 세분해 보면 공산권국가 가운데 優先 蘇聯과 15건으로 全體건수의 16%정도를 차지해 1위를 나타냈고 다음이 체코 9건, 中國 8건, 蒙古 7건, 루마니아 5건, 불가리아·헝가리 각 4건, 東獨 3건, 알바니아·폴란드 각 2건順이다.

그리고 中東·亞지역서는 리비아 4건, 이란·印度 각 2건이 체결됐으며 아프리카지역서는 부르키나파소 3건, 모

잠비크·시에라레온·짐바브웨·나이제리아·탄자니아·세네갈·세이셸·이디오피아·우간다·앙골라·부룬디·카메룬과 각각 1건씩을 체결했다.

또한 中美지역 나라들에서는 쿠바와 4건, 니카라과·페루·콜롬비아와 각 1건씩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월에는 콜롬비아와 대사급 修交를 맺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北韓이 88년도에 締結한 각종 對外協定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經濟·科學·技術協力關係協定이 총 41건으로 全體건수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貿易關係協定이 17건, 親善 및 外交協力協定 12건, 社會·文化·教育關係協定이 10건, 公報·交通關係協定이 9건, 기본관계협정이 6건, 보건의협정이 1건順이다.

나라별·내용별 협정내용분류에서 볼수 있는 特徵은 北韓이 주로 蘇聯·中國을 비롯한 共產圈國家를 중심으로해 일부 非同盟圈內 親北국가들과의 既存의 協力關係를 維持하기 위한 상례적인 對外協力들이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결국 北韓外交의 편중성과 한계성을 역력히 반영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協定內容에서도 共產圈·기타 親北性向국가들과의 「經協」推進에 力點을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現在

北韓經濟現實이 外債·市場性 등 對外經濟與件의 脆弱性으로 인해 先進西方국가들로부터의 투자외면상황아래서 불가피한 궁여지책인 것으로 볼수 있다.

요컨대 北韓으로서는 지난해부터 進行되고 있는 제3차7개년경제계획(87~93)수행에 따른 不足한 資本 및 技術을 이들 나라들과의 經濟協力을 강구해 나가는 가운데 當면한 經濟難을 타개해 나가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조인된 각종 對外協定이 조인된 締約地를 보면 平壤과 海外가 각각 57對 39로 나타나 北韓은 지난 한해동안 訪問外交보다는 招請外交에 주력, 招請對象國과의 分野別關係強化에 주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北韓이 主要國家들과 調印한 協定內容을 좀더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經濟·科學·技術·貿易協定

전체 체결건수의 60%정도인 58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經濟關係·貿易關係의 주요 協定內容으로는 우선 經濟·科學·技術協力分野에서 蘇聯과 지난해 調印한 직접 생산 및 과학기술연계실현을 위한 합의서(9.23), 2천년까지의 해운분야협력협정(12.21)을 토대로한 후속협력관계를

맺었는데 과학기술협조협정(2월), 공작기계 및 공구분야협력 협정(3월) 운수부문협조협정(8월), 91~95년도 선박건조협조협정(11월)이 각각締結되었으며 또한 쌍방간의 상설협력기구인 「經濟科學技術協議委」(22차) 「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委」(21차) 年次會議를 통해 産業分野에서의 技術協力を 마련하는 이 會議議定書들에 조인했다.

中國과는 常設協力機構인 科學技術協調委(28차)를 통해 機械·金屬·動力·輕工業·農業分野에서 70개대상협조사업을 推進하기로 하는 關係協力協定을 調印한 사실이 주목된 가운데 氣象分野·科學技術分野(89~90년도)에서도 關係協定이 조인돼 北韓·中國간의 科學技術交流擴大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의 共產圈國家들과는 주로 정례적인 相互 經濟科學技術委·科學技術協力委 定期會議 개최를 통해 北韓의 經濟計劃推進에 따른 産業설비·기술지원을 내용으로 한 「會議議定書」가 체결됐다.

기타지역국가들과도 부르키나파소와 共同委員會常設協定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6건의 分野別 支援協力協定을 조인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貿易關係分野에서는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國家들과 10건의 88~89년도의 年例通商協定을 조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밖에 印度와 貿易 및 經濟關係發展協定, 이란과 무역 및 經濟技術協調協定, 페루와 貿易推進協定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통상 協力對象國을 다변화하는데 注力했음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관계 및 친선강화 協定

基本關係協定으로는 불가리아와 相互旅行協定, 체코와 형·민사사건법률상협조협정과 영사협약, 蒙古와도 法律相協調協定이 조인됐으며 특히 리비아와는 쌍방영사관설치를 위한 영사협약이, 그리고 콜롬비아와 대사급 外交關係樹立에 합의함으로써 北韓의 外交力強化에 주력했다.

또한 체코·모잠비크·蒙古·蘇聯과 각각 外交部間 協調協定을締結해 外交實務協力を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체코와는 親善 및 協調에 관한 條約이 更新됨으로써 이 나라와의 協力關係가 同盟關係를 계속 維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타협정

社會·文化·教育關係協定은 주로 蘇聯 및 東歐국가들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비아·앙골라등과 文化協定을 각각 조인함으로써 이들 나라와의 友好協力增進에 힘썼다.

公報·交通關係分野에서는 헝가리·쿠바·체코등과 각각 放送分野協定을, 그리고 리비아·케메룬·부룬디·부르키니파소등과도 공보분야협정과 체신분야협정을 締結해 이들과의 關係發展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①〉 88년도 對外協定締結現況(88.12월 現在)

내 용 구 분		기 본	친선및 외 교	經 科 技	貿 易	사 회 문 화 교 육	공 보 교 통	보 건	계
공 산 권	蘇聯		2	7	1	5			15
	中國			4	1	1	1	1	8
	東歐 기타	4	5	14	8	2	3		36
	中東·亞	1	1	2	2	1	1		8
	阿		3	5	3	1	3		15
	中 美	1		3	2		1		7
	기 타		1	6					7
	계	6	12	41	17	10	9	1	96

〈자료 ②〉 분야별 협정조인내용

〈기본협정〉

일 자	체 약 국	협 정 명	체 약 지
6.15	불 가 리 아	상오 여행에 관한 협정	平壤
7.21	리 비 아	쌍방 영사관설치를 위한 영사협약	타라볼스
9.11	체 코	형·민사사건에 대한 법 률상방조에 관한 조약	平壤
9.11	체 코	영사협약	平壤
10.24	콜 롬 비 아	대사급 외교관계합의	뉴욕
10.29	蒙 古	법률상 방조조약	울란바트로

〈親善 및 外交協定〉

1.22	체 코	외교부간 상호협조에 관 한 합의서	프 라 하
1.27	모 잠 비 크	외교부간 협조합의서 및 88-90년도 협조계획서	마 푸 토
2.12	시에라레온	平壤·프리타운市間 친 선연계설정합의서	프 리 타 운

5.25	루 마 니 아	친선협회간 88-89년도 협조계약서	平 壤
5.27	소 련	친선협회간 상호협조에 관한 88년도의정서	모 스 크 바
6.7	체 코	친선협회간 88-89년도 협조계약서	프 라 하
6.26	이 탈 리 아	平南 安州市 · 이탈리아 살쵸르쵸아 크레마노 市 간 친선연계협정	安 州
9.11	체 코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 약	平 壤
10.17	蒙 古	외교부간 89-90년도 협 조계획서	울란바트로
11.16	소 련	외교부간 89-90년도 교 류계획서	모 스 크 바
11.27	짐 바 브 웨	전문가 및 국제문제정보 교환에 관한 의정서	하 라 레
12.7	印 度	인도간디국민대회당과 협조합의서	뉴 델 리

〈經濟·科學·技術관계협정〉

2.4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협조협정	모스크바
3.1	소련	공작기계 및 공구공업분야 협조발전합의서	평양
3.29	루마니아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12차회의의정서	부크레슈티
4.5	루마니아	경제과학기술협의회 제13차회의의정서	부크레슈티
4.8	루마니아	과학원간 88-90년도 협조계획서	부크레슈티
4.19	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1차회의의정서	평양
4.28	소련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제22차회의의정서	평양
5.18	유엔개발계획	채소생산현대화사업협조	평양
5.26	유엔개발계획	전기기계측정시험소설치와 향료생산기반강화협조	평양

6.16	헝 가 리	경제 및 과학기술협약위원회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 13차회의의정서	平壤
6.30	蒙 古	경제 및 과학기술협약위원회 창설협정	울란바트로
7.2	리 비 아	공동위원회 5차회의의 정서	平壤
7.7	알 바 니 아	과학기술협조상설위원회 제 15차회의의정서	티라나
7.12	中 國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28차 회의의정서	平壤
8.3	中 國	朝·中압록강수력발전 회사이사회 41차회의의 정서	平壤
8.14	탄 자 니 아	공동위원회 3차회의의 정서	平壤
8.25	세 네 갈	공동위원회 1차회의의 정서	平壤
8.29	소 련	경제과학기술협약위원회 운 수부문협조실무분과 제 3차회의의정서	平壤

9.7	체	코	경제과학기술협의위원회 6차회의의정서	平	壤
9.9	부르키니파소		공동위원회창설협정	平	壤
9.15	유엔개발계획		토양 및 식물체분석시험 소와 양어과학연구소 현 대화협조	平	壤
9.15	中	國	89년 기상과학부문교류 계획서	北	京
9.26	쿠	바	건축가동맹간 89-90년 도 협조계획서	平	壤
10.5	이	란	수산업분야협조확대합 의서	平	壤
10.6	中	國	과학원간 89-90년도 과 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平	壤
10.6	유엔개발계획		과일생산 및 저장기술개 선과 벼육종개선을 위한 협조	平	壤
10.9	蘇	聯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	平	壤

10.19	東 獨	委 제21차회의의정서 식물분야협조협정	東 베 르 린
10.25	蒙 古	과학기술협조문화委 제 17차회의의정서	平 壤
10.26	유엔개발계획	변압기생산현대화대상 협조	平 壤
10.28	蒙 古	과학원간 과학협조협정 및 89-90년도 과학협조 계획서	平 壤
11.2	니 카 라 과	공동위원회 제5차회의 의정서	마 나 과
11.8	세 이 셸	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	平 壤
11.10	쿠 바	경제과학기술협외委 및 과학기술협조분과委 12 회의의정서	아 바 나
11.11	東 獨	경제과학기술협외委 제 11차회의의정서	東 베 르 린
11.16	蒙 古	경제과학기술협외委 제 1차회의의정서	平 壤
11.16	불 가 리 아	농업과학원간 89-90년 도 과학협조계약서	평 양

11. 21	유엔개발계획	축산개발계획에 관한 협조	平	壤
11. 21	蘇 聯	91-95년도 선박건조분야 경제과학기술협조협정	平	壤
12. 5	蘇 聯	89년도 기상수문해상자 연환경감시분야 과학기술교류의정서	平	壤
12. 5	폴 란 드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 12차회의의정서	바 르 샤 바	

〈무역협정〉

일 자	체 약 국	협 정 명	체 약 지
1.25	헝 가 리	88년도 상품유통 및 지 불에 관한 의정서	평壤
2.5	中 國	88년도 상품교류의정서	평壤
2.17	印 度	무역 및 경제관계를 발 전시킬 데 대한 합의서	뉴 델 리
4.2	蘇 聯	88년도 교역 및 결제관 한 의정서	모 스크 바
4.13	불 가 리 아	88년도 상품상호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소 피 아
5.7	이 디 오 피 아	88년도 통상협정	평壤
6.5	우 간 다	88-89년도 구상무역 의 정서	평壤
6.24	이 란	무역 및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	테 헤 란
8.6	蒙 古	89년도 상품상호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평壤
8.27	東 獨	89년도 상품상호납입에 관한 의정서	평壤
9.9	부르키니 파소	무역협정	평壤

10.6	알 바 니 아	89년도 상품상호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平	壤		
10.20	루 마 니 아	89년도 상품유통 및 지 불에 관한 의정서	平	壤		
10.10	쿠 바	89년도 상품교류의정서	아	바	나	
11.16	페 루	무역부간 무역촉진에 관 한 협정	리	마		
11.26	폴 란 드	89년도 상품유통 및 지 불에 관한 의정서	바	르	샤	바
12.8	체 코	89년도 상품유통 및 지 불의정서	프	라	하	

〈社會·文化·教育관계협정〉

2.5	소 련	88년도 영화부문교류사 업계획서	平	壤
3.4	蘇 聯	직업동맹간 협조발전합 의서	平	壤
3.29	소 련	88-90년도 문화 및 과 학협조계획서	平	壤

4. 8	蘇	聯	기자동맹간 88-89년의 정서	모 스 크 바
6. 20	체	코	88-90년도 문화협조계 획서	平 壤
6. 21	불 가 리 아		교육과 학위증서 同等性 인정에 관한 협정	平 壤
7. 2	리 비 아		88-90년도 공보 및 문 화협조집행계획서	平 壤
8. 30	蘇	聯	청년동맹간 88-90년도 협정	平 壤
10. 26	앙 골 라		87-90년도 문화협조계 획서	루 안 다
11. 17	中	國	89-90년도 문화교류계 획서	平 壤

〈공보 및 교통 관계협정〉

1. 14	형 가 리		TV방송분야협조협정	平 壤
1. 29	쿠 바		R·TV방송위원회간 사 업의정서	平 壤

2.11	中 國	국경하천운항협조위 제 27차회의의정서	심 양
4.4	부 룬 디	공보분야협조협정	주壤
5.12	부르키나파소	공보분야협조협정	와가두구
5.30	형 가 리	88-90년도 R방송분야 협조의정서	부다페스트
6.23	체 코	88-90년도 R방송분야 협조의정서	프라하
7.2	리 비 아	88-90년도 공보 및 문화협조집행계획서	주壤
8.19	카 메 룬	채신분야협조협정	야운데

〈보건협정〉

10.20	中 國	보건부간 88-89년도 집행계획서	주壤
-------	-----	--------------------	----

◎ 電子 및 自動化工業發展 注力

— 政務院에 2개 관련부서 新設 —

北韓이 최근들어 電子 및 自動化工業發展을 위한 政策적 배려와 함께 몇가지 가시적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고 있다.

지난 11월하순의 勞動黨 제6기14차전원회의에서 工作機械工業과 電子·自動化工業發展을 주요 골자로한 政策課業을 제시한 바 있는 北韓은 이어 12월 15일자로 政務院에 「電子·自動化工業委員會」를 獨立部署로 新設했다고 平壤放送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앞서 北韓은 黨全員會議 이후 主要 관련 工場·企業所들에서 이와관련한 煽動集會를 잇달아 개최하는가 하면 「勞動新聞」등 주요선전매체들을 통해 이분야발전의 중요 성과가 시급함을 逆說하는 가운데 黨政策의 효과적인 추진을 적극 促求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번 黨全員會議에서 工作機械工業과 電子 및 自動化工業問題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는데 특히 經濟現代化를 위한 電子·自動化工業部門의 發展을 위한 구체적인 對策이 論議 및 決定된 것으로 北韓報道機關들이 전한바 있다.

이 會議을 통해 北韓은 電子製品에 대한 내부수요가 날로 增大되고 있는 現實을 지적하면서 특히 TV와 녹음기 등 가전기기들의 生産增大를 촉구했다.

北韓은 電子産業의 基本이 되는 電子自動化工業發展을 위해서는 컴퓨터용 集積回路와 半導體등 부품소재공업의 擴充이 중요한 과제임을 認識하고 이부문의 投資 및 技術水準 향상에 주력할 것을 促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工作機械工業分野와도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과제로서, 設計의 標準化·專門化·規格化 수준의 향상을 촉구하면서 관련 기술인력양성문제를 集中論議했다고 北韓放送이 報道한 바 있다.

北韓은 이 全員會議을 통해 政策課業을 제시한 이후 주요 關聯工場과 研究機關들로하여금 課業貫徹을 독려하는 靑島集會들을 잇달아 開催했다.

이같은 靑島集會는 12월 중순 이후까지 工作機械 또는 工具關聯工場들인 망경대공작기계·운산공구공장 등 10여 개 工場들과 金日成大學과 科學院등 研究機關들에서 進行됐는데 이 가운데 특히 科學院의 선동集會(12.10)가 靑島를 끝냈다.

과학원원장을 비롯해 조종기계연구소·전자계산기연구소·기계공학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책임자들과 연구사업

종사자들이 참가한 이 월기집회에서는 科學者·技術者들에 대해 經濟의 自動化·로봇화·電子計算機化를 실현하기 위한 研究事業을 적극화할 것을 촉구했다.

즉 輸出型 工作機械, 電子材料와 전자요소, 전자계산기, 자동조종장치, 로봇 등 研究開發事業의 구체적인 方向과 목표들이 제시되고 이같은 課業을 實現하기위해 「2.17科學者들격대」와 「2.17科學者·技術者들격대」의 活動強化를 강조했다고 北韓放送들이 보도한 바 있다.

北韓은 또한 「勞動新聞」등 주요선전매체들을 통해 電子·自動化工業發展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면서 이 部門에 대한 投資擴大를 示唆하기도 했다.

월 3일자 「勞動新聞」의 경우 「가까운 몇해」안에 尖端產業을 國際水準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金日成의 「敎示」를 상기시키면서 ○生産工程 및 技術의 改善 ○工具 및 유압기구의 品質向上 ○전자계산기集積回路生産基地設立과 기존시설의 내실화 ○科學者·技術者들의 시급한 양성등을 강조했다. 또한 7일자 이 新聞社說에서는 黨全員會議에서 제기된 課業의 올바른 집행대책수립을 促求하면서 經濟組織事業의 개선과 이 部門에 대한 投資擴大를 통한 산업시설건설을 촉구했으며 14일자 勞動新聞에도 關聯部門間 부종사자들의 역할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논조를 揭載했다.

이처럼 勞動黨全員會議에서의 政策課業제시에 이어 각종
결기집회를 통한 組織動員事業과 함께 政務院에 이 部門을
관장할 독립부서를 新設하는 등으로 電子 및 自動化工業發
展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政務院의 「電子·自動化工業委員會」 新設은 이 部
門에 대한 經營管理改善과 投資 및 支援事業의 효율적인
遂行과 함께 특히 海外資本 및 技術導入에 보다 能動的으
로 대처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번의 政務院부서 신설은 이에 앞서 단행된 바 있
는 합영공업부 新設과도 密接한 연관성을 갖고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政務院에 獨立部署로 新設된 合營公
업부(부장 蔡喜正)는 기존의 대외경제사업부 合營지도국을
확대 改編한 것으로 外國과의 合作·合營사업을 총괄 전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北韓은 지난 86년 가을 海外弘報用 雜誌인
「FOREIGN TRADE」에 半導體와 小型컴퓨터 등 電子產業
과 산업로봇·遠隔制御裝置를 비롯한 自動化工業 등 尖
端技術分野에 대한 對北韓投資를 권유하는 홍보문을 揭載
하면서 投資와 관련된 제반실무사항을 당시의 이 「합영사
업국」을 통해 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北韓은 이 투자안내문에서 다이오드·集積回路·콘덴서

및 절연체생산공장 등 半導體產業과 전자계산기·소형컴퓨터제작 등 컴퓨터산업 ○기타 전자시계·녹음기·VTR·리모콘장난감 등 家電製品生産分野를 ○산업로봇·遠隔 및 自動制御裝置·자동변화장치 등 尖端技術分野를 투자대상으로 제시했었다.

따라서 尖端產業과 관련한 海外資本 및 技術導入窓口인 합영공업부의 확대신설과 電子·自動化工業委員會 新設은 이 部門의 發展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北韓의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電子 및 自動化工業育成發展을 위해 보다 強力한 행정적인 뒷받침아래 海外資本 및 기술의 유치·도입을 적극화하고 내부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다.

北韓은 현재 沸流江電氣(평남성천)·모란봉자동화기구(평양)·「10.5」자동화종합공장(평양)등에서 半導體 集積回路·自動화소재·機構등을 生産하고 있으나 85년초에 처음으로 集積回路의 試製品을 생산했을 만큼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다.

또한 電子工業水準의 이같은 落後로 자동화부문의 요체라 할수 있는 수치제어 기술역시 설계 및 製作試圖段階의 저급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 료〉 원문발췌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황을 일으키자」(12.3 로동신문사설) 要旨

○ 오늘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이며 새로운 단계로 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 현시대는 전자사회, 로봇트화의 시대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자공업이 최신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공작기계의 수치 조정화에 생산공정의 로봇트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계 기술로 장비하고 자동화 로봇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도 수치조정 공작기계와 로봇트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과 해당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수치조정장치 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조정장치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며 최신용 수치조정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

○ 현시기 전자 자동화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정비 보장하여 생산을 더욱 늘이면서 수치조정장치를 대량생산하여 공작기계의 현대화수

준을 높이며 전자계산기 집적회로를 비롯한 전자제품과 전자재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우리나라 전자 자동화공업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 자동화공업 부문에서는 이 중심과업을 틀어쥐고 힘을 넣어 전자계산기 생산토대와 집적회로 생산기지, 전자요소와 부품품, 부속품 생산기지, 전자재료생산기지를 더 잘 꾸리고 그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한다.

○ 이와함께 전자 자동화공업부문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에 맞게 텔레비존수상기, 전자계산기, 녹음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일용전자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 과학연구사업과 설계 및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대한 중요한 요구이다. 과학기술발전을 떠난 기계공업의 현대화와 그 빠른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수치조정장치와 전자계산기 집적회로 수행기구 생산을 높이며 전자 자동화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설계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기계 및 전자 자동화부문 과학자 기술자 설계가 전문가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Ⅲ. 알아듣시다.

- 革命遺子女 學院 運營實態
- 北韓의 “구호나무” 宣傳騷動
- 白頭山 一代에 “金父子 偶像聖域” 造成
—“대노천 博物館” 工事로 進行
- 平壤서 “成道節 法會” 開催
- 順川 綜合化學團地 建設實態
- 朝鮮勞動黨의 誤謬와 矛盾性



◎ 革命유자녀학원 운영실태

— 핵심혁명간부양성에 注力 —

北韓은 이른바 抗日鬪爭 및 6.25동란에 參戰한 소위 「革命鬪士」 자녀들에 대한 特別優待教育을 實施하기 위해 「革命遺子女學院」을 設置·運營해 오고 있다.

北韓이 이처럼 革命遺子女學院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金日成父子의 혁명 1세대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들을 黨·政기관간부로 育成함으로써 代를 이은 忠誠을 유도해 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목적에서 설치된 革命遺子女學院은 현재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南浦革命遺子女學院·海州혁명유자녀학원 등 세곳이 있다.

이들 혁명유자녀학원의 設置沿革을 보면 北韓은 지난 47년 10월 平南 大城郡에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을 최초로 設置, 1차로 3백 35명을 수용했다.

이후 이 學院을 現在의 位置인 만경대로 이전해 48년부터 혁명유자녀에 대한 特殊教育을 확대, 실시해오고 있으며 추가로 58년 南浦革命遺子女學院과 海州革命遺子女學院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北韓은 지난 51년부터는 6.25동란중에 희생된 軍將兵 및 빨치산들과 愛國烈士들의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내각결정(1백 92호)과 이후 58년 유자녀학원 및 초등학교사업을 改善·強化한데 대한 내각결정(68호)을 통해 혁명 1세대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配慮와 함께 金日成에 충직하는 革命2세 養成에 注力해 왔다.

北韓은 58년부터는 革命遺子女들에 대한 特殊教育을 11년제로 확대개편하는 등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이들을 人民學校過程부터 高等中學校過程까지 일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의 경우 지난 47년 10월 設置된 이후 現在는 직업혁명가양성기관으로서 北韓의 黨·政핵심인물을 배출하는 소위 귀족학교로 北韓住民들간에 認識되고 있다.

이 학원의 入學資格은 革命遺家族의 子女들과 高位級幹部들의 자식들로 제한되어 있다.

學生들은 전원 학원기숙사에서 宿食토록 되어있으며 특히 軍官들과 같은 將校服裝을 착용토록 해 軍營에서와 같은 集團生活을 實施하고 있다.

이들은 재학기간인 인민반에서부터 고등반에 이르기까지 11년간 集團·收容되어 철저한 團體生活과 軍事訓練, 그리

고 金日成父子에 대한 忠誠心, 反韓·反美 적개심만을 키우면서 金日成父子에 대한 철저한 결사대·근위대로 육성되고 있으며 이 학원 졸업후에는 최우선적으로 金日成大學이나 黨·政機關 및 군대의 將校로 임용되는 등 高級幹部로서의 등용이 보장되는 特惠를 누리고 있다.

현재 이 학원의 學生數는 전체 재학생이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학원 관장부서는 여타학교와는 달리 人民武力部에 所屬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의 位置가 어떠한가를 짐작케 한다.

오늘날 이 學院卒業生들이 위로는 權力核心部署에서부터 아래로는 黨·政機關軍部內에서 高位幹部로서 발판을 굳히고 있고 金日成·金正日體制를 보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 革命學院이 金父子체제확립 및 공고화를 위한 核心幹部養成의 후비기지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北韓은 지난해 이 학원설립 40주와 關聯, 10월 11일자 勞動新聞은 학원장인 吳在元(上將)의 記名기념기사게재를 통해 金正日이 『우리혁명의 代를 역사계 이어나갈 골간부대·핵심부대를 키우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學院』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이 학원을 『黨과 革命의 核心적 후비육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強化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吳在元은 특히 이들을 『金日成·金正日의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忠直한 계승자』로 양성하기 위한 黨의 학습제일주의방침·革命的 組織生活·科學技術 및 軍事知識教育強化方針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이 학원출신 가운데 黨·政·軍部內에서 주요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黨핵심 상층부인 黨政治局內에 延亨默·徐允錫·姜成山·全炳浩가 정치국 정위원에 있으며 이 가운데 延亨默은 지난 12월 12일 政務院總理로 등용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黨비서국內에도 全炳浩·崔泰福이 비서로 기용되어 있으며 黨中央委부서장에도 金國泰·임호근 등이 있다. 政務院內에도 현재 金渙이 化學工業部長職에, 尹基貞이 재정부장직에 각각 기용돼 있다.

또한 地方 黨·政책임 부서격인 道·市 黨책임비서 및 인민 위원장직에도 全炳律(平北), 徐允錫(平南), 이봉길(慈江), 林亨九(江原), 崔文善(黃北) 등이 두루포진돼 있다.

軍部內 인물로는 金江煥·金光鎭(大將), 金斗南·崔相旭 등이 黨군사위원직에 있으며 尹致鎬(中將)가 軍총정치국선전부 국장직에 있다.

그간 金正日體制確立의 軍內 주도적 역할을 遂行해온

軍 총참모장 吳克列은 지난 2월 해임된 바 있다.

이밖에도 중앙검찰소장직에 한상규가 玄竣極은 최근 黨 국제부장직에서 로동신문주필로 자리를 바꾸었으며 黨외곽 단체인 농근맹조직에도 朴守東이 位置해 있다.

이같은 만경대학원출신들의 要職起用과 포진은 金正日이 이 학원출신이란 점에서 볼때 이들과 더불어 후계권력체제를 構築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한편 北韓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뿐만 아니라 강반석(金日成의 母) 혁명유자녀학원에 대해서도 최근 이 學院을 擴大·改編해 革命2세·3세들에 대한 教育을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은 지난 9월 1일 이른바 강반석 政治大學創立 30돌 기념보고회를 통해 이 大學이 『革命戰士들의 자녀들을 黨과 革命의 核心공간으로 키우는 우리黨의 믿음직한 幹部養成基地』라고 밝힘으로써 종래의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을 政治大學으로 승격해 擴大運營해오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 대학 학장인 주순옥은 紀念報告에서 이 大學을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확고히 세우고 政治思想的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黨과 首領을 목숨으로 擁護·保衛하고 黨의 統一과 團結을 強化하기 위한 革命的 集團으로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北韓은 핵심적인 혁명 2세·3세양

성을 통해 金正日 후계체제를 더욱 공고화해 보려는 意圖
를 드러내기도 했다.

◎ 北韓의 「구호나무」 宣傳騷動

— 金父子偶像化의 한 斷面 —

北韓의 宣傳機關들은 요즈음 기이하고 생소하기조차한 이른바 「구호(口號)나무」에 관한 宣傳騷動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北韓의 宣傳機關들이 主張하는 「구호나무」라는 것은 金日成이 日帝下 白頭山일대에서 소위 「抗日빨치산투쟁」을 벌일 당시 그곳 밀림의 나무껍질들을 벗겨낸 자리에 金日成과 그의 前妻 金晶淑(金正日의 生母)을 찬양하는 내용의 갖가지 口號들을 새겨넣었다는 나무들을 말한다.

北韓의 放送·新聞들은 요즈음 白頭山일대를 비롯한 함경남·북도, 자강도 등 北韓 北部地域의 삼림지대에서 이러한 「구호나무」들이 수많이 새로 발굴되고 있다고 主張하고 이 「구호나무」들이야 말로 50여년 전인 日帝下에서 백성들이 金日成과 金晶淑에 대한 『무한한 尊敬心과 欽慕의 實證的 證據』라고 강변하면서 이 「구호나무」의 정신에 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친애하는 指導者 金正日同志의 領導를 높이받들고 代를 이어 完成하기 위한 鬪爭을 英雄的으로 벌이자』운운으로 극력선동하고 있다.

北韓당국이 金日成·金正日父子와 金晶淑등 일족을 偶像化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거짓사실들을 造作하고 歷史를 왜곡기술해온 것은 周知의 사실인데 최근 北韓宣傳機關들의 이와같은 「구호나무」宣傳動向 역시 이러한 作態의 一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北韓당국은 그동안 金日成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자료들을 날조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宣傳하면서 北韓住民들에게 이 資料들이야말로 『革命傳統敎養의 산 資料』로 삼을 것을 반복 促求해오는 가운데 金日成이 지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중에 빨치산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白頭山의 소위 「密營」 주변에서 이와같은 「구호나무」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데 北韓의 宣傳機關들이 요즈음 이처럼 白頭山周邊뿐만 아니라 北韓의 北部地域 일대에서 이러한 「구호나무」들이 대량발굴되고 있다고 宣傳하고 金日成과 金晶淑에 대한 稱頌과 偶像化宣傳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속셈은 金正日후계체제확립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金正日의 혈통미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의 카리스마적 權威에 덧칠을 하기 위한 속셈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策動과 관련, 지난 11월 22일 平壤放送은 최근 이러한 「구호나무」들이 白頭山의 「密營」에서뿐 아니라

함경남·북도, 자강도 등지의 도처에서 계속 대량 발굴되고 있다고 宣傳하고 金正日은 이 「구호나무」들이야말로 『抗日革命鬪爭의 實證的이고 歷史的인 資料이며 한없이 貴重한 革命의 만년재부』라고 지적했다고 強調하면서 50여년 전에 나무에 새겨졌다는 口號의 내용들이란 것을 장황하게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이른바 『천출장군 만민 향도성 金日成』이라느니 『抗日獨立 여장수 金晶淑』이라느니 『2천만이여 사랑하라 民族의 英雄 金日成大將』이라느니 『抗日的 여장수 김대장, 縮地法이은 여걸…』 등등으로 흡사 惑世誣民하는 어설픈 巫女의 神堂안에나 걸려있음직한 口號들이 대부분이었다.

北韓의 이 放送은 특히 이 「口號」들 가운데 金正日의 등장을 간접지칭한다는 이른바 『朝鮮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할 백두성 솟았다』라는 口號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이 구호야말로 『革命威業을 代를 이어 繼承하기 위한 鬪爭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으로 金正日의 후계자지위 正統성여부에 이 口號宣傳놀음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의 平壤放送도 최근 北韓의 소위 「革命史的 指導總局」의 주관으로 白頭山一帶와 함경남·북도 및 자강도일대에서 「구호나무」發掘作業을 벌인 결과

겉질벗긴 나무 8만 5천여개를 찾아냈는데 이중에 金日成讚揚등의 口號가 새겨진 나무만도 2천 2백여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北韓의 이 放送은 이번 發掘에서 「구호나무」가 발견된 지역은 白頭山一帶를 비롯해서 무산군·연산군·청진시·나진시·선봉군·은덕군·부령군·경성군·부전군·단천시·이원군 등에 걸치는 광범한 지역이라면서 이렇게 넓은 地域에서 새로 발견된 「구호나무」야말로 『우리혁명의 고귀한 재부이며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敎養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운운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이 放送은 이어 이들 나무에 적힌 口號의 내용들이 한결 같이 소위 「革命的 首領觀」에 넘친 내용들이라고 강조하는 등으로 金正日후계체제 당위성 선전에 적극 이용했다.

北韓이 宣傳하는 이 「구호나무」들이라는 것이 金日成을 비롯한 그 一族의 이른바 「抗日鬪爭」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부분이 後世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까지 北韓집단이 펼쳐온 수법에 비추어 볼때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는 것이다.

平壤放送은 이와같은 「구호나무」들의 造作事實을 간접적으로 示唆라도 하려는 듯이 지난 11월 28일 『최근에 오랜 세월 눈비에 씻기고 풍화를 받아 구호가 보이지 않는 구호

나무들에 새로 연구한 몇가지 시약을 발라 글자들을 원상
태로 되살리고 보호하는데 성공했다』고 억지 主張하고 나
섰다.

北韓의 이 放送은 일단의 北韓 「科學院傘下 革命史蹟保
存研究所」소속 연구집단이 「구호나무」의 글자들을 되살려
내라는 金正日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에 따라 연구를 한
결과 이러한 시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지금까지는 형광·투
광장치를 통해서만 볼수 있는 글자들을 육안을 통해 볼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北韓集團이 最近 펼치고 있는 이 희한한 「구호나무」宣傳
騷動은 웃지못할 또하나의 金日成·金正日偶像化놀음의 한
단면이다.

◎ 白頭山一帶에 「金父子偶像聖域」造成

—「대노천박물관」工事로 進行—

北韓은 日帝하에서 金日成이 白頭山을 거점으로 하여 抗日鬪爭을 전개했다는 구실아래 白頭山을 金日成—金正日父子의 偶像化를 위한 宣傳場으로 이용함으로써 크게 汚染시키고 있다.

現在 北韓이 白頭山周邊에 造成한 金父子 偶像物은 金日成의 抗日鬪爭史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과 權力承繼者인 金正日의 權威造作을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金日成의 抗日鬪爭史를 浮刻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金日成革命戰跡地를 들수 있는데 이는 보천보혁명전적지·삼지연혁명전적지·무산지구혁명전적지·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두만강연안혁명전적지·동북지구 혁명전적지 등 모두 6개소가 造成되어 있으며 이들중 두만강연안혁명전적지와 동북지구혁명전적지를 除外한 4개소가 白頭山周邊에 位置해 있다.

그리고 金正日의 權威를 造作하기 위한 것으로는 白頭山 밀영혁명사적지와 「正日峰」 등이 있으며 이들은 80년대 중반이후 金正日후계체제를 構築함에 있어 金正日의 「革命

性」을 浮刻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集中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白頭山밀영혁명전적지는 北韓이 이곳을 金正日의 出生地로 浮刻시키기 위해 1986년 7월 金日成의 지시에 의해 金正日革命史蹟地로 지정함에 따라 金日成·金正日父子 우상화를 위한 典型的인 場所로 되고 있다.

北韓放送들은 白頭山밀영이 1938년 9월 金日成에 의해 最初로 抗日거점으로 꾸려진 이후 혁명사령부가 위치했던 곳으로서 주변에 간백산밀영·사자봉밀영·고원산밀영등 10여개의 밀영이 조성되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白頭山밀영에 대해 金正日의 革命史蹟地로서의 면모를 強化하기 위해 이른바 金正日의 「백두산고향집」인근에 있는 산봉우리를 「正日峰」이라고 명명하고 지난 11월 16일 제막식을 가졌다. 北韓宣傳媒體들에 따르면 「正日峰」은 白頭山의 최고봉인 장군봉(병사봉)에서 약 6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白頭山밀영의 「金正日 고향집」과 직선거리로 3백 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北韓은 「正日峰」의 명명배경과 관련해 『실로 찬란히 빛나는 主體朝鮮의 오늘의 榮光과 끝없는 웅성변영, 자주외거세찬 흐름은 金正日同志의 존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온나라 全體人民들과 世界革命

人民들은 친애하는 金正日同志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그의 존함과 함께 만대에 길이 빛내어 나가는 것을 시대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임무로, 간절한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 「正日峰」의 명명이 「온나라 전체인민」과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要求에 의한 것인양 宣傳했다.

그리고 北韓은 白頭山밀영 隣近의 산봉우리에 金正日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革命的 偉大한 指導者를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指向과 念願』 또는 『白頭山 밀림에서 개척된 主體의 革命威業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意志』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행위가 金日成·金正日父子세습 체제를 위한 金正日 個人 偶像化作業의 一環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北韓은 「正日峰」이 金正日의 白頭山밀영혁명사적지의 범위안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白頭山밀영의 해돋이 바위에서 아침해를 맞아 정일봉에 비춰주면 어리신 金正日同志께서 용마바위에 올라 장검바위를 비껴드시고 白頭山으로 날아오르셨다』는 전설이 있다고 소개하며 지난 8월 金正日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허리춤에 내리던 빗발이 금방 그치고 무지개가 피어 올랐는데 그 무지개가 『白頭山天地와 정일봉에 뿌리를 두고 내렸다』고 주장, 白頭山밀영혁명

사적지와 「正日峰」을 통해 金正日의 「비범함」을 강조함으로써 金正日偶像化 形態를 金日成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北韓은 과거 金日成의 革命活動과 관련해 白頭山밀영에 焦點을 맞추므로써 白頭山밀영혁명전적지로 불러왔는데 최근에는 白頭山밀영을 중심으로 주변에 간백산밀영, 사자봉밀영, 고원산밀영 등 10여개의 밀영이 相互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두산혁명전적지」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最近 白頭山에 흠어져 있는 혁명전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노천박물관으로 造成하기 위한 事業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19일 平壤放送에 따르면 「白頭山革命戰跡地建設事業」으로 명명된 이 事業은 白頭山一帶를 金日成—金正日父子偶像化를 위한 「대노천박물관」으로 造成한다는 原則에 따라 6천m² 規模의 「혁명사적관」과 「群像기념비」 및 金日成이 抗日革命活動 때 사용했다는 각종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北韓은 白頭山革命戰跡地 내의 「소백수」 골안에 「革命史蹟館」을 건립하고, 白頭山밀영과 白頭山入口에 독특한 形式의 問柱들을 세우며 白頭山밀영 가까이 位置해 있는 간백산밀영에 혁명대원들의 투쟁

및 生活모습을 새긴 群像기념비의 건립과 귀틀집 및 각종 시설물들의 原狀復舊 實施, 사자봉밀영과 고원산밀영 등지에 대부대 또는 소부대의 숙영소 등의 유격 근거지를 복원하며, 그리고 三池淵郡에 답사자들을 위한 旅館·商店 등 便宜奉仕施設 등을 建設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그동안 白頭山 周邊에서 40여개의 귀틀집과 2백여개의 우등불, 깃질을 벗겨 口號를 새긴 1만여그루의 「구호나무」등의 혁명유적·유물이 발굴되었다고 조작선전함으로써 白頭山一帶에 金日成의 抗日革命活動의 흔적들이 散在해 있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따라서 北韓이 이번에 白頭山周邊의 革命戰跡地들을 한데 묶어 이른바 대노천박물관으로 造成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白頭山밀영에 焦點을 맞추어 金父子의 革命活動像을 浮刻시켜오던데서 벗어나 白頭山周邊의 모든 革命戰跡地가 서로 유기적 關係를 맺고 있는 것으로 宣傳함으로써 ○白頭山 全體를 金日成—金正日의 革命活動舞臺로 認識시키며 ○白頭山밀영과 「正日峰」의 浮刻을 통해 金日成에 비해 월등히 뒤져있는 金正日의 「革命性」을 金日成과 대등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등의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결국 北韓은 그동안 金日成 爲主의 革命傳統을 樹立해 왔

으나 金日成이후를 겨냥해 金正日의 「革命性」을 浮刻시킬 필요가 증대함에 따라 金正日의 出生地로 宣傳하고 있는 白頭山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金日成의 革命戰跡地를 하나의 範疇로 묶음으로서 白頭山一帶를 金日成과 金正日의 共同의 革命戰跡地 또는 史蹟地化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平壤서 成道節法會 開催

— 宗教行事 통해 政治宣傳 —

음력 12월 8일이었던 지난 1월 15일 平壤에 있는 龍華寺라는 절에서는 불교 3대의식의 하나인 「成道節」紀念法會가 열렸다고 한다.

平壤放送 報道에 의하면 釋迦가 부처님이 되신 날을 봉축하는 이날 「成道節紀念法會」에는 北韓의 「불교도연맹」소속 교직자들과 「승려」 「신도」들이 다수 참석해 釋尊의 僧伽歸依에서부터 成道에까지 이르는 과정의 佛教儀式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法會에서는 불교도연맹 부위원장인 황병대禪師가 「和解와 團合을 實現한데 대한 불타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땅에 평화와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설교도 있었다고 平壤放送이 전했다.

또한 이날 成道節紀念法會는 龍華寺뿐 아니라 북한각지의 주요사찰들에서 일제히 열렸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어 1월 20일 묘향산의 普賢寺에서는 북한 불교도연맹 소속 中央 및 「지방일군」들, 각지 사찰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祖國統一祈願法會」가 열렸다고 역시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이번 成道節기념법회행사는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묘향산 普賢寺에서 가졌다는 석탄일기념법회와 마찬가지로 北韓政權創立이후 무려 40여년만에 처음 있는 佛敎行事의 하나라는 事實에서 關心을 끌고 있다.

또한 이같은 佛敎行事는 최근들어 北韓이 宗教와 관련된 국제적 集會에 적극 참가하는가 하면 서방종교인들의 北韓 방문을 일부 허용하는 등 일련의 조짐과 그 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겠다.

北韓은 지난해 5월의 석탄기념법회에 이어 6월하순에는 평양에서 「天主教人協會」라는 宗教團體가 結成됐다고 주장(平壤放送 보도) 했으며 이어 11월 LA에서 열린 16차세계 불교대회(WFB)에 代表團을 파견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금년들어 「成道節」法會에 이어 「祖國統一祈願法會」를 여는 등 최근들어 宗教行事를 잇달아 진행했다고 宣傳하고 있다.

한편 87년 6월에는 韓國의 張益신부가 포함된 교황청대표단이 平壤서 열린 非同盟特別閣僚會議에 읍저버로 참가한데 이어 작년 바티칸의 復活節미사에 북한인 2명을 참가시키기도 했고 기타 西方國家 종교인들의 북한방문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共產政權樹立以後 철저한 宗教彈壓抹殺政策을 펴오던 北韓이 최근들어 이처럼 각종 宗教行事を 벌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종교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잇달은 커다란 변화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北韓의 宗教에 대한 本質的인 變化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아야할것 같다.

과거 70년대 들어 國際的 데탕트 기류와 南北對話에 대처하기 위해 北韓은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불교도연맹」, 「기독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등 위장 종교단체를 내세워 마치 북한에도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 조직들을 대남 위장평화 선전 또는 國際社會에서의 親北支持勢力糾습에 이용해 왔었다.

지난해 6월말에 결성했다는 「천주교인협회」도 기존의 基督教·불교도·천도교단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또는 한국내에서 天主教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해 그들이 주장하는 南北連席會議에서의 카운터파트너로 이용하려고 급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무렵 우리사회의 여러갈래에서 部分變化가 제기되고 있고 統一論議에 便乘해 宗教를 앞세워 韓國社會의 國論分裂과 混亂造成을 노린 僞裝平和攻勢를 전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의 釋誕法會나今年の 成道節紀念法會, 祖國統一祈願法會등 일련의 宗教行事들과 關聯한 平壤放送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몇가지 뚜렷한 特徵과 공통점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석탄기념법회에서 보현사주지 청운禪師가 주관했다는 「좌담회」에서는 주로 『美帝는 朝鮮人民의 온갖 고통과 불행의 근본화근』이며 『지상淨土建設위해서는 美帝의 南朝鮮 強占,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야한다...』, 『南朝鮮 불교도들은 自主化, 民主化, 統一成業에 과감히 참가하고 북남학생회담 성사에 努力해야 한다』는 요지의 討論이 있었다고 平壤放送이 報道한 바 있다.

이번 成道節法會에서도 불교도 연맹부위원장 황병대 禪師가 金日成 新年辭를 引用, 『북남 政治的·軍事的·對決 狀態를 解消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최소한 올해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안할 태도라도 명백히 보여야 하며... 북남 불교도들이 이의 실현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要旨의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황병대 禪師는 며칠후에 열린 普賢寺의 「통일기원법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平壤放送이 전했다.

작년의 석탄기념행사나 成道節法會, 統一祈願法會 등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우선 외형상 불교도연맹소속 「일군」들

과 「信者」들을 動員한 가운데 불법의식에 따른 法會를 개최하는 등 宗教行事임을 부각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좌담회나 설교의 주요내용이 韓半島 非核·平和地帶化實現, 남북학생회담촉구, 팀·스피리트훈련 中止, 남북정치협상회의등 현재 北韓이 展開하고 있는 대남평화공세를 대변하는 등 政治宣傳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두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北韓은 금년들어 統一祈願法會 뿐 아니라 基督教聯盟委員長 金成律, 天主教人協會長 장재철 등의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 金日成 新年辭內容 중 南北韓關係를 비롯한 政治宣傳대목에 대해 지지찬동케 한것도 같은 脈絡에서 그 속셈을 헤아려 볼수 있겠다.

최근들어 西方世界の 종교인들이나 韓國國籍을 가진 宗教人들의 北韓訪問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北韓에서의 宗教行事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목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예컨대 佛敎의 경우만 보더라도 몇차례의 佛敎儀式을 주재했다고 普賢寺 또는 龍華寺의 「주지」 또는 불교도 연맹부회장 등의 직함을 가진 「禪師」라는 인물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승려」이겠느냐 하는 점이다. 北韓은 지금까지 주요사

찰들에 대해 「유서깊은 文化遺蹟」을 관리 保存한다는 側面에서 극소수의 관리인을 두어왔고 또 「불교도연맹지방일군」도 있다고 主張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佛敎에 歸依해 佛敎儀式을 執典하면서 佛敎를 지켜 온 진정한 意味의 「승려」 또는 「禪師」라고 하기엔 무척 어색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일련의 佛敎行事들이 對南放送媒體인 平壤放送을 통해 「보도」만 됐을 뿐이 報道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는 아직까지 외부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北韓에서의 宗教活動을 평가해야 할 必要性을 제기하고 있다.

◎ 順川綜合化學團地 建設實態

北韓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平南 順川市)를 종합화학단지로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주력업종인 비날론생산시설(연산 10만톤규모)과 함께 가성소다공장과 肥料·담백질사료공장등을 최근 잇달아 착공하는 등 綜合化學團地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83년 9월에 비날론공장을 착공하면서 北韓은 비날론외에 염화지날(20만톤)·카바이트(1백만톤)·가성소다(40만톤)·질소비료(90만톤)·단백질사료(30만톤)화력발전소(20만kw) 등 생산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3백여종의 화학관련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미비로 工事が不振, 거의 中斷상태에 있다가 86년초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설비규모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려잡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2차목표시한인 지난 9월까지 겨우 일부 카바이트爐와 석회爐, 화력발전소등 일부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그쳤다.

이처럼 기본건설을 포함한 團地造成計劃이 계속 차질을 빚자 金日成이 현지를 방문(88.10.8)해 工事の 早期着工및 完工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10월하순과 11월초순에 걸쳐

가성소다와 肥料, 사료공장등을 잇달아 着工한 것이다. 그러나 주력부문인 비닐론생산시설 건설계획이 資本과 기계설비 및 建設資材不足등으로 蹉跌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에서 볼수.있듯이 이번에 工事を 시작한 부대생산시설 역시 완공시한을 예측하기란 어렵다.

이번에 착공된 工場들의 개략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료공장(10.31 着工)

비닐론과 염화비닐등의 주원료인 카바이트를 생산하는 過程에서 일산화탄소 및 수소등 가스도 함께 發生된다. 이 附生가스에 카바이트를 배합하여 요소 및 석회질소등 질소질비료를 생산하게될 이 工場은 年産 약 90만톤 능력의 규모인 것으로 북한선전기관들이 밝힌바 있다.

北韓은 現在 興南肥料·咸興青年化學등 10여개 主要工場들이 질소질비료 약 2백만톤과 磷酸質비료 1백 50만톤등 연간 약 3백 50만톤가량의 화학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흥남비료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장들이 오래돼 시설자체가 老朽돼있는데다 生産方式이나 설비도 뒤떨어져 가동율이 극히 低調한 實情이다. 더구나 磷精鑛·硫化鐵 등 원료마저 부족해 공장설비들이 제대로

可動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北韓은 고질적인 化學肥料不足으로 해마다 營農作業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같은 화학비료 절대부족과 적기공급 차질을 메꾸기위해 퇴비·부식토등의 생산이용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와함께 현행 3차7개년경제계획(87~93)기간 중 化學肥料生産量을 7백20만톤으로 늘인다는 목표아래 현재 사리원카리비료(연산 51만톤규모)와 해주 重過石肥料·단천 鑛安肥料工場등의 建設을 추진하고 있다.

비날론생산과정과 연계생산의 이점을 가진 이번 順川비날론 비료공장도 이같은 肥料增産計劃의 一環으로 着工된 것이다.

최소한 3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工場(年産 90만톤규모)이 完工, 操業하면 비료부족현상이 다소 완화 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극심한 不足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가성소다 공장(10.25 着工)

가성소다는 纖維·油脂·製紙등의 原料로 사용되는 주요한 기초화학약품으로 현재 北韓은 2.8비날론공장을 비롯한 60여개의 크고 작은 화학공장들에서 연간 약 11만톤(순도

1백%)을 생산할 수 있는 施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8비날론공장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소규모의 地方工場들로서 시설도 낡고 기술도 뒤떨어져 실제 生産實績은 부진한 실상인 것 같다. 따라서 가성소다가 반드시 필요한 纖維·製紙·油脂등 관련산업시설들이 제대로 원료공급을 받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한 實情이다.

이번에 着工한 順川비날론공장의 가성소다공장은 연간 25톤 생산능력 규모라고 北韓은 發表했는데 이는 纖維 및 製紙工場에서 原料로 사용되는 순도 45%를 기준으로 한 生産能力이다.

따라서 이를 순도 1백%로 換算할 경우 연간 약 12만톤의 가성소다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2~3년후 이 工場이 操業하면 현재 60여개 工場에서 生産하고 있는 量보다 2배가 더 넘게돼 가성소다제품의 自給과 함께 기초화학약품 기반확충과 연관산업원료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성소다를 生産하는 過程에서 부산물로 얻게되는 염소는 역시 이 화학단지안에 建設될 計劃인 염화비닐공장의 주요원료로 사용되는 이점도 있다.

韓國은 현재 연간 약 30만톤의 가성소다(순도 1백%기준) 生産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담백질 사료공장 2단계공사(11.5 着工)

北韓이 生産하고자 하는 이 家畜飼料은 메탄올을 배양액으로 하여 효모, 박테리아 등 菌主를 대량배양한 뒤 분리 건조시켜 酸價담백질사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지난 60년대초부터 開發된 이 담백질 사료는 담백질함량 40~60%로 가축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발암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事實이 밝혀짐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갈수록 생산이 격감되고 있다(韓國은 현재 研究開發 자체를 중단해버린 상태임).

北韓이 이처럼 사용기피되고 있는 飼料生産工場을 세우려 하는 것은 비날론 工場에서 카바이트를 생산할 때 방산하는 일산화탄소와 수소 등을 합성해 배양액인 메탄올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北韓은 당초 총 30만톤의 담백질 생산시설을 순천비날론 공장구내에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그 1단계로 지난 4월 1만톤 규모의 工場建設에 착수한 바 있다.

따라서 5만톤규모로 추정되는 이번의 2단계공장 着工에 이어 계속 단계적으로 工事を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製造過程의 배양액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생산시설도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30만톤의 단백질사료를 생산하는 데는 60만톤의 메탄올이 소요된다. 현재 北韓의 메탄올 총생산 能力은 연간 약 75만톤이며 비날론공장구내에 10만톤규모의 메탄올 생산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北韓은 이 飼料工場建設을 계기로 뒤떨어진 畜產育成에 注力함으로써 肉類供給擴大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 「朝鮮勞動黨」의 誤謬와 矛盾性

최근 北韓은 그들 社會主義 革命의 참모부라고 일컫는 「勞動黨」體制를 강화하기 위한 宣傳煽動事業을 적극화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北韓宣傳機關들은 울들어 黨기관지 「勞動新聞」을 비롯한 주요 新聞·放送 등을 통해 黨의 「統一團結」強化를 역설하는 論調들을 전례없이 반복 게재 또는 宣傳하는 가운데 金日成父子에 대한 領導力을 浮刻시키고 忠誠心 提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北韓煽動論調들 내용속에는 은연중 金正日이 北韓權力의 求心點이 되고 있음을 示威하면서 金正日후 계체제를 옹호 보위하는 길만이 全體 黨員들의 統一團結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식으로 金正日체제를 합리화하려는 底意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40년동안 金日成의 1人1黨獨裁體制로 운영되어온 北韓 「勞動黨」은 黨운영체제만은 물론 黨성격 規定에 있어 수많은 誤謬와 矛盾點을 내재시킨 가운데 이끌어 온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비민주적이고 비현실적인 黨운영

체계를 그대로 둔채 金正日을 黨首位로 부상시키는 權力承繼作業과 함께 허울좋은 偶像化宣傳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앞두고 있는 北韓勞動黨이 지난 40여년동안 金日成에 의해 1인지배체제로 주도되어오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성과 矛盾點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음 金正日후계체제의 屬性을 이해한다는 側面에서 볼때 의미있는 일이라 할수 있다.

北韓은 共產主義的 階級史觀에 따라 黨을 『일정한 階級の 利益을 守護하며 그의 要求와 지향을 守護하기 위해 鬪爭하는 階級の 선봉대』라고 正義하고 있다.

이같은 黨에 관한 정의는 黨의 意味와 性格을 규명하고 그 事業과 活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黨체제를 合理化하기 위해 展開하고 있는 기만적 궤변에 불과함을 알수가 있다.

이러한 事實은 黨의 正義를 金日成의 교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事實을 비롯하여 그들이 나열하고 있는 黨에 관한 主張들의 그 矛盾性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勞動黨」이라고 하는 것은 勞動階級과 勤勞大衆의 利益을 擁護하고 그들의 指向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鬪爭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들 社會에 勞動階級과 勤勞大衆만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다른 계급이나 대중의 의사

를 대변하고 이들의 利益과 要求를 擁護 實現하는 여타의 黨도 認定해야 한다.

또한 「勞動黨」은 설사 勞動階級과 근로대중의 선봉대라고는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서 階級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先進 정수분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政權機關 勤勞團體 군대 등 모든 계급적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唯一的 領導의 地位를 確固히 차지함을 전제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우수한 선진 정수분자들이 아니면 黨員으로 될수가 없다는 뜻이며 이는 黨안에 강철같은 革命的 規律을 확립하는 것이 首領의 思想과 領導를 확고히 實現하는데 두고 있는 점에서 볼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시말해, 실제에 있어 노동계급과 勤勞大衆의 意思나 要求를 指向하기 위해 형성된 造作이 아니라, 金日成思想과 領導의 확고한 實現을 위해 階級的 利益과 要求의 擁護를 그 名分으로 내세우고 있을 뿐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론 勞動階級과 勤勞大衆 全部가 黨員으로 될 수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가장 우수한 先進 정수분자만이 階級的 利益과 要求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金日成을 비롯한 모든 핵심당간부들이 勞動階級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이들이 勞動階級위에

君臨하면서 金日成 1인 長期獨裁를 營爲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大衆의 知慧와 우수한 鬪爭經驗을 自體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大衆을 意識化하여 黨의 요구에 무조건 절대 복종케 함으로써 革命과 建設, 다시말해 『首領의 思想과 領導를 확고히 實現』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大衆의 意識化」는 首領의 思想과 領導의 확고한 實現이 勞動階級과 勤勞大衆의 利益과 指向의 擁護 實現과 동일시로 인식을 시키기위한 것인만큼, 首領의 思想과 領導는 勞動階級の 利益과 指向을 대변하거나 그것과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다만 그같은 계획된 의도를 合理化하기 위한 기만적 구실이라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事實은 그들이 이른바 勞動階級の 黨을 『民主主義 中央執權制 原則에 의해 결속된 「부대」라는 주장에서도 그 例外가 아니다.

이는 勞動階級과 勤勞大衆의 指向과 要求의 實現을 표방한 「勞動黨」이 이미 그러한 執權과 執權의 組織的 獨裁活動을 전제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主張처럼 『黨이란 일정한 階級の 利益을 守護하

고 그의 要求와 指向을 實現』하는 것이라면, 그 집권적 형태는 어떠한 간에, 그것이 勞動黨의 絶對的 統治方式이나 임무 기능 또는 그 사명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勞動階級과 勤勞大衆위에 군림하여 獨裁를 行事하기 위한 名分으로서의 기만적인 구실이며 결국은 『首領의 思想과 領導 實現』을 위한 체제유지의 手段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같은 黨의 獨裁的 支配體制를 「民主主義」라는 전제아래 中央執權制원칙과 그 조직적 勢力을 合理化하고 있는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

말하자면, 北韓 「勞動黨」의 執權은 勞動階級과 勤勞大衆의 要求와 利益의 代辯으로서 그 具現形態가 아니라 金日成 1인 獨裁를 合理化하기위해 계획적으로 組織된 統治手段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事實은 굳이 北韓 「勞動黨」의 形成에 있어 그 歷史的 過程이나 背景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勞動黨」만이 唯一한 黨으로서 그들의 政權機關인 政務院을 비롯하여 行政機關과 司法機關·軍隊組織·教育 文化機關은 물론 産業經濟機關까지도 掌握하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의 장과 주요 幹部자리를 모조리 勞動黨의 熱誠黨員으로 메꾸고 있는 黨獨裁의 現實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黨과 行政의 최고위직을 金日成 한사람이 겸임하고 있으며, 모든 機關團體와 職場들에 소위 黨委員會를 두고 黨委員長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장을 감독토록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실례의 일면인 것이다.

北韓이 그들의 「勞動黨」이외의 어떠한 黨이나 그 黨의 實際的 存在와 役割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모든 政權機關과 團體에 黨의 路線과 政策遂行 이외에 어떠한 獨自性을 許容하지 않고있고, 심지어는 이름뿐인 유명 黨團體를 造作하여 勞動黨의 둘러리로 세우고 있는 현실 역시 이러한 점에서 그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北韓의 「勞動黨」이 유일한 黨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절대적 獨裁를 行事하고 있는 理由는 바로 그 存在의 矛盾性과 불합리성을 逆說的으로 反證하는 證據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北韓의 「勞動黨」이 이처럼 唯一獨裁黨으로서 存在하는 이유만큼 그 矛盾性을 말하며, 이같은 矛盾性 만큼이나 오늘날 그들의 現實은 바로 그러한 體制의 非民主的 運營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

—時事資料—

統一教育('89-1)

1989年 3月 日 印刷

1989年 3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236-1749, 234-4103)

印 刷 和 盛 文 化 社

(電話 278-3421, 3422)
